***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24일 일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52호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성명

22일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은 한미호전집단이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벌인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한미호전집단은 끝끝내 21일부터 ≪연합전시증권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한 대규모적인 합동군사훈련을 벌여놓았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 훈련에는 주한미군은 물론 미국본토와 일본, 괌도 등 해외에 주둔해 있는 수만명의 미제침략군과 50여만명의 국군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이 대거 동원되고 있다.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은 그 규모와 내용, 성격에 있어서 핵위기전쟁인 ≪팀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을 훨씬 능가하는 철두철미 핵선제타격을 위한 북침전면전쟁을 결심한 극히 위험천만한 침략공격훈련이다.

호전적인 부시행정부가 ≪핵태세 검토보고서≫에서 이북을 공공연히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하고 한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사상 처음으로 전례없이 방대한 침략무력이 동원된 2개의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통합하여 서울 이북지역의 휴전선일대에서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실이 이를 실증해주고 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북을 ≪악의 축≫으로 폭언하며 대북강경압살책동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호전광부시가 서울행각을 통해 북침전쟁준비상태를 최종점검한 이후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이 작전준비단계를 벗어나 극히 위험한 실천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한미호전집단이 벌여놓은 이번 합동군사훈련을 6.15공동선언이행으로 민족자주,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염원을 짓밟고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극악한 침략전쟁의 전주곡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로 낙인하고 전국민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미국은 저들이 떠드는 대화란 내외여론을 기만우롱하기 위한 한낱 제스추어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이북을 군사적 힘으로 제압해 전한반도를 타고앉을 흉심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 땅에서 높아가는 민족자주통일기운을 차단하고 아프간전쟁의 불길을 한반도에 옮겨와 끝끝내 새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부시정권의 흉포무도하고 무분별한 호전적 책동으로 하여 한반도에서는 시시각각 일촉즉발의 핵전쟁위험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이 실전에로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 위험천만한 사태앞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공멸의 참혹한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각계 애국민중은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이 엄숙한 시각에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거족적인 반미반전투쟁에 결연히 분기해 나서야 할 것이다.

불을 즐기는 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며 침략자들에게 차례질 것은 수치스러운 파멸과 죽음뿐이다.

한미호전세력은 우리 민중의 견결한 반미평화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하며 모험적인 북침전쟁연습소동을 즉각 중지해야한다.

우리 한민전은 전국민과 함께 핵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갈 것이다.

한반도 평화 막는 한미합동군사연습 반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23일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민중연대 주최로 통일광장, 민주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단체와 학생들이 함께 한 가운데 ≪대북전쟁연습 한미군사훈련 반대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에 앞서 군사연습과 관련해 지난 20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22일에는 포항에서 육탄으로 미군 장갑차를 막는 시위를 가졌다. 또 통일연대 한상렬 공동대표는 오늘로 4일째 단식 농성을 진행 중이다.

민화협 홍근수 상임의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번 군사연습은 무엇보다 북을 겨냥한 것으로 남과 북의 화해에 또 다시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이를 파기하려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 6.15 남북공동선언에 위배되는 것으로 적극 저지해 나갈 것이다≫라며 ≪지난 시절 우리가 겪었던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바라는 마음으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원하는 우리의 의지를 전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빈민연합 장봉주 부의장은 결의문을 통해 ≪연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통합한 대규모 한미 연합 군사연습은 군사적 힘으로 이북을 붕괴시키려는 의도이다. 미국은 이미 98년 ≪5027-98 작전≫ 계획을 수립,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언, 최근에는 핵 태세 검토라는 비밀 보고서에 핵무기 사용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다. 이 같은 행동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장 부의장은 ≪우리는 부시 정부가 핵전쟁을 참화를 몰아오는 전쟁연습을 중단하길 촉구하고, 평화와 통일을 원하는 온 국민과 함께 전쟁의 근원을 없애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반전평화 운동을 힘있게 펼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뉴스 2002/03/23

미국은 립장을 명백히 밝히라

22일부 ≪민주조선≫은 조선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리고 있는 미국의 립장을 단죄규탄하는 론평을 실었다.

론평의 필자는 조선에 대한 최근 미국의 책동은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최대의 위협인 동시에 조미사이의 합의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원래 우리는 조미기본합의문이 발표된 후 미국에서 그것을 달가와 하지 않는 세력들이 있으며 그 파괴를 위해 준동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이것이 자기의 공식립장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현 미행정부가 조미기본합의문을 백지화하기 위해 모지름을 쓰는 기본집단이라는 생각을 품지 않을수 없게 하고 있다.

미국이 우리에 대한 핵불사용담보의 의무를 포기하려는것은 자기가 한 약속조차 지켜 낼수 없을 정도로 무능력하고 타락한 정권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 내보인것으로 된다. 또한 그것은 막대한 전력손실을 보면서까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우리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며 추악한 배신행위로 된다. 우리는 조미사이의 핵합의문을 비롯한 모든 문제들이 그대로 리행되여도 좋고 깨져도 무방하다는 립장이다.

미국이 우리와의 약속이 불편스러워 그것을 깨버린다면 우리도 제 갈길을 가면 되는것이다.

미국은 자기의 립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3월 22일

2 노작
- 재미교포들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 있게 벌릴데 대하여 (2)

4 세기와더불어
- 4장 8절 두만강을 건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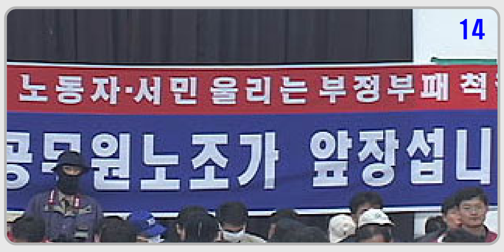
6 칭송
- 군인들의 문화정서생활도 보살피시는 장군님
- 새 천년은 장군님세상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모신 축등

7 구국의 소리
- 한편의 노래를 두고 / 구국의 소리 뉴스 – 3월 22일
- 진짜 ≪악의 축≫ 미국
- 3.24≪한일회담≫반대투쟁과 오늘의 과제

9 조선중앙방송
- 주체 91, 3월 22일 보도
- 백두의 선군전통을 계승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승을 떨칠것이다 (1) – 노동신문사설 3월 20일

11 평양방송
- 국토관리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

12 아리랑뉴스
- 한미군사훈련 반대 국민대회
- 한미합동군사훈련, 고이즈미 방한 반대
- 종교계, F-X 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기도회
- 남한 공안당국의 실체를 묻는다
- 고이즈미 총리 경주 방문을 막아라
- 민주노동당, 고리대금합법화 저지 시위
- 발전 해외매각 반대 범국민대회
- 전공련, 공무원노조 출범
- ILO, 구속 노조간부 석방.노동법 정비 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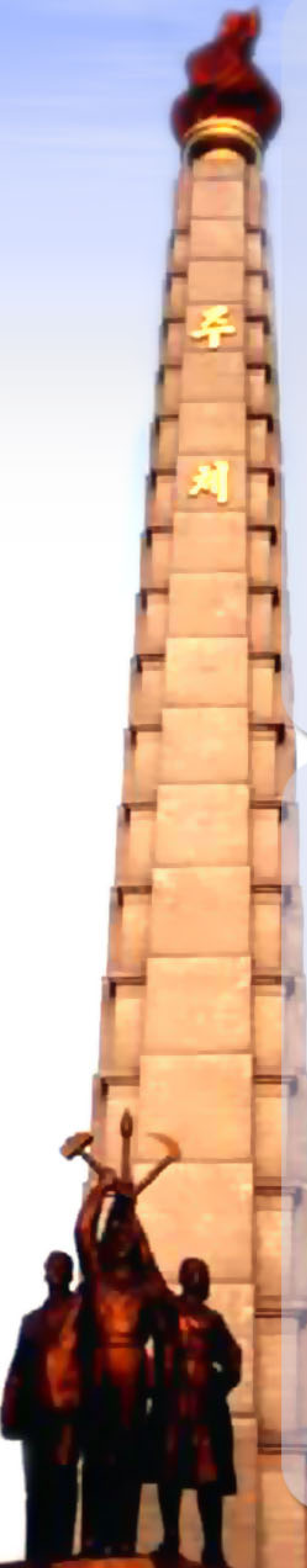


15 운동강좌
- 진보정당건설에 대하여 2 (3)

16 조국통일3대현장
- 통일운동의 진두에 서시여 (2)

재미교포들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 있게 벌릴데 대하여(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노작 - 재미교포들과 한 담화 / 주체82(1993)년 3월 11일



재미교포들도 조선민족인것만큼 응당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야 합니다. 재미교포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려면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지금 재미교포가 100여만명 되는데 그 수가 재일동포들보다 더 많습니다. 재미교포들이 굳게 단결하면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할수 있습니다. 100여만명이나 되는 재미교포들이 굳게 뭉쳐 미국정부에 련방제통일방안을 지지해 달라는 식으로 들이대면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을것입니다.

재미교포들이 굳게 단결하자면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야 합니다. 물론 교포들사이에 정견과 신앙의 차이가 있을수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서로 다른 다섯손가락을 하나로 합치면 주먹이 되듯이 정견과 신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로 굳게 뭉치면 큰 힘을 발휘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재미교포들은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굳게 단결하여야 합니다. 동포들속에 분파를 조성하거나 서로 반목질시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교포들이 분파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싸우게 되면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할수 없을뿐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전에 내가 길림육문중학교에 다닐 때 목격한 사실을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때 길림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모여 드는 곳이였습니다. 나는 길림육문중학교시절에 김찬, 신일용, 안광천을 비롯한 화요파와 서상파, 엠엘파의 거두들도 만나보고 정의부와 참의부, 신민부의 두령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때 길림복흥태정미소에서는 정의부와 참의부, 신민부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3부통합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나는 학교에 갔다 오다가 그곳에 들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면서 부질없는 말싸움만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좀 자극을 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3인1당≫이라는 연극을 만들어 그들앞에서 공연하였습니다. 그들은 연극을 보면서 처음에는 좋아 하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들을 풍자한 연극이라는것을 알고 노발대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조선국민회의 조직자인 김형직선생의 아들이라는것을 알고 있었기때문에 나를 어찌지는 못하였습니다. 나는 노발대발하는 그들에게 선생님들이 나를 욕하지 말고 빨리 무엇을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라의 독립도 하지 못하고 남의 나라에 와서 밤낮 말싸움만 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후 그들은 정의부와 참의부, 신민부를 통합하여 국민부를 내왔습니다. 그때 내가 만든 연극 ≪3인1당≫은 오늘 **김정일**동지의 지도밑에 혁명연극으로 각색되여 사람들의 깊은 관심속에 공연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것은 재미교포들도 분파행동을 하지 말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는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를 걸고 자기 군대를 남조선에 주둔시키고있지만 그들의 진짜 속심은 우리보다도 중국이나 일본을 견제하려는데 있습니다. 미국은 쏘련이 망했기때문에 로씨야를 겁나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미교포들은 미국사람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옳은 리해를 가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할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수하면 우리와 좋은 친구로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국을 통일하여 우리 식 사회주의를 끝까지 고수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아버님께서 가르쳐주신 ≪지원≫의 뜻을 품고 혁명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시면서 여러 곳에 학교를 세우시고 거기에 뜻을 원대하게 가져야 한다는 사상이 담긴 ≪지원≫이라는 글을 써붙이시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일제를 몰아 내고 나라를 독립하자면 ≪지원≫의 뜻을 가져야 한다고 하시면서 조선사람들에게 두가지 결함이 있는데 그것을 고쳐야 한다, 조선사람이 가지고 있는 첫째 결함은 단결하지 못하는것이다, 나라를 독립하자면 모든 조선사람들이 하나로 뭉쳐야 하겠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끔 삼인일당, 오인일파식으로 당파를 뭇고있다, 둘째 결함은 일을 5분열도식으로 하는것이다, 혁명투쟁은 일정한 시간 바글바글 끓다가 그만두는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나는 아버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1926년에 ≪ㅌ. ㄷ≫를 결성하였으며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근 70년동안 조선혁명을 위하여 일관성 있게 투쟁하여 왔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지원≫의 높은 뜻을 받들고 조선혁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선생들이 미국에서 주체사상보급사업을 적극 벌리겠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이 우리의 사회주의를 이전 쏘련이나 동구라파나라들의 사회주의와 같은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그 나라들의 사회주의와는 다릅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는 우리 인민이 자기의 신념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 사회주의이며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풀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우리 당마크에 로동자, 농민을 상징하는 마치와 낫과 함께 지식인을 상징하는 붓을 새겨 넣은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말미암아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는 지식인들이 매우 부족하였습니다. 해방전에 북조선에는 전문학교가 몇개 있었을뿐이고 대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제놈들은 일본식으로 성과 이름을 고치지 않는 조선사람들은 소학교에도 다니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민족성이 강한 조선사람들의 아들딸들은 학교에 갈수 없었습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 법과를 나온 사람은 좀 있었어도 기술대학을 나온 사람은 10여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지식인문제를 자체로 해결하기로 결심하고 **김일성**종합대학을 창설하였습니다. 우리가 종합대학을 세우려고 할 때 일부 사람들은 나라의 형편이 어려운데 어떻게 종합대학을 세우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한 교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조선에까지 사람들을 보내여 지식인들을 데려 오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김일성**종합대학에 있는 오랜 박사들가운데 그때 남조선에서 들어 온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후 우리는 나라의 여러 곳에 대학들을 더 내오고 많은 지식인들을 키워 냈습니다. 이제는 지식인대렬이 160여만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 대학들에서 공부한 지식인들이 지금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동지도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왔는데 그가 지금 우리 혁명을 잘 령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학졸업정도의 지식수준을 가지게 하여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자고 합니다. 온 사회를 인테리화하면 우리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문명한 나라로 될것이며 우리 인민은 가장 문명한 민족으로 될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나라에는 거지나 아편중독자, 술주정뱅이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조국을 방문하였던 재미교포 김성락목사도 나에게 **김일성**주석님께서 이 땅우에 천국을 건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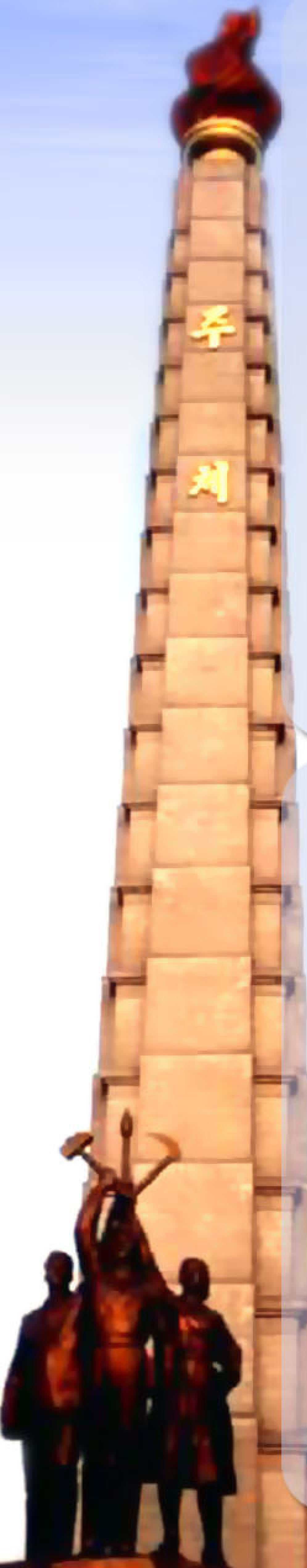
선생들이 내가 쓴 회고록을 읽고 혁명동지들에 대한 나의 의리심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조국의 광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위업을 위하여 싸우다가 희생된 동지들을 잊을수 없습니다. 여기 금수산의사당에서 대성산 주작봉이 잘 보이는데 거기에 혁명렬사릉이 있습니다. 나는 희생된 동지들이 보고 싶을 때마다 여기서 대성산에 있는 혁명렬사릉을 바라보군합니다. 대성산에 있는 혁명렬사릉에 항일혁명렬사들을 다 안장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조국의 광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하여 싸우다 희생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들을 다 혁명렬사릉에 안장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혁명렬사릉에는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주요지휘관들과 중요직책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선발하여 안장하고 그들의 반신상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혁명렬사릉에는 내가 제일 사랑하는 전령병이였던 김봉석동무의 반신상도 세웠습니다. 김봉석동무는 우리 나라가 해방되기 하루전인 1945년 8월 14일에 전사하였습니다. 그는 조국해방작전에 참가하여 련락임무를 수행하고 돌아 오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어느 한 집에 들려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가 다른 때 같으면 배고픈것을 참고 돌아 올수도 있었겠는데 인차 조국이 해방되겠는데 무엇때문에 배를 곯겠는가고 생각하면서 아무 집에나 들어 가 밥을 달라고 하였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찾아 들어간 집주인이 일제의 주구였습니다. 그 집주인은 김봉석동무가 떠나자 인차 일제놈들을 찾아 가 그를 고발하였습니다. 김봉석동무는 적들의 추격을 받으며 두만강을 건느다가 적탄에 맞아 희생되였습니다. 김봉석동무가 강복판에서 총에 맞다보니 그의 시체도 찾지 못하였습니다.

선생들이 내가 쓴 회고록이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자신들의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지금 회고록 제4권을 쓰고 있는데 더 늙기전에 계획하였던 회고록을 다 쓰려고 합니다. 나는 앞으로 선생들이 조국에 자주 오기를 바랍니다.

(끝)

해외동포들속에서 조국통일운동을 힘 있게 벌려 나갈데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노작 - 독립국가협동체 조선통일촉진위원회 위원장일행과 한 담화 / 1993년 6월 6일



오늘 1년만에 동무들과 이렇게 다시 만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동무들은 그동안 반동들과의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리면서 조국통일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동무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와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서 사는 동포들과의 사업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한데 대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높이 평가합니다.

동무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조국통일운동을 더 적극적으로 벌려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혁명의 안팎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며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의연히 많은 난관과 시련이 가로 놓여 있습니다.

동무들도 알고 있는바와 같이 최근년간에 제국주의자들과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이전 쏘련과 동구라파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자본주의가 복귀되는 비정상적인 사태가 벌어 졌습니다.

쏘련은 고르바쵸브가 말아 먹었지만 쏘련이 와해되기 시작한것은 흐루쑈브때부터입니다. 흐루쑈브는 ≪개인미신≫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쓰딸린을 악랄하게 헐뜯었으며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노는 역할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때로부터 쏘련당에서는 령도의 중심이 없어 지게 되였습니다. 로동계급의 당이 령도의 중심을 잃고 수령의 령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전투력이 마비되여 혁명과 건설을 옳게 령도해 나갈수 없습니다.

나는 최근에 구라파나라들의 이전 공산당들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을 만나 주는데 그때마다 그들에게 혁명과 건설에서 당과 수령이 노는 역할에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면서 수령, 당, 대중의 호상관계를 복숭아에 비유하여 설명해 주군 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숭아는 겉에 살이 있고 그속에 굳은 껍질이 있으며 그속에 씨가 있다, 복숭아의 씨는 수령과 같고 굳은 껍질은 당과 같으며 살은 대중과 같다, 당을 강화하려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당의 두리에 대중을 튼튼히 묶어 세워야 한다, 우리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을 실현하였기때문에 오늘과 같이 강유력한 당으로 될수 있었다고 말해 줍니다.

수령의 역할을 거부하는것은 결국 당을 파괴하기 위한것이며 혁명을 말아 먹기 위한것입니다. 흐루쑈브가 집권하여 수령의 역할을 거부하다보니 쏘련공산당은 점차 무력해 졌으며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당의 령도를 반대하여 나섰습니다. 쏘련공산당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거의나 하지 않았습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사상교양사업을 하지 않고 물질적자극만 강조하다보니 사람들은 돈밖에 모르는 수전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당도 조국도 인민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 자동차를 사고 별장을 구입하여 잘 살겠는가 하는것만 생각하게 되였으며 처녀들은 자동차나 별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시집을 가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사상정신상태가 이렇게 한심한 형편에 이르다보니 그들은 고르바쵸브가 내놓은 ≪새로운 사고방식≫의 반동성을 가려 보지 못하였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이란 오늘날에 와서는 적이 따로 없으므로 제국주의자들과도 손을 잡아야 한다는것입니다. 쏘련사람들은 고르바쵸브가 ≪새로운 사고방식≫이라는 기만적인 구호를 들고 나와 ≪공개성≫이요, ≪개편≫이요 하고 떠들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 물었습니다. 그리하여 1, 800만명의 당원을 가진 쏘련공산당이 하루아침에 녹아 나고 쏘련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쏘련공산당과 쏘련의 붕괴에서 교훈을 찾은 이전 쏘련사람들은 지금 사회주의를 재건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자본주의의 쓴맛을 어지간히 보았기때문에 자본주의가 자본가들에게나 좋았지 인민들에게는 나쁘다는것을 깨달은것 같습니다. 그들이 사회주의를 다시 복구하려면 하나의 대오에 뭉쳐 적극적으로 투쟁하여야 합니다.

최근에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에 오는데 그들은 우리보고 어떻게 하나 사회주의를 고수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우리는 사회주의기발을 놓지 않을것이다, 우리는 비겁한 자야 갈라면 가라, 우리들은 붉은기를 지키리라는 혁명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사회주의 붉은 기발을 계속 높이 들고 나갈것이라고 말해 주군 합니다. 나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투쟁하면 멀지 않아 자기들의 목적을 실현할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의 정세도 매우 긴장합니다. 이전 쏘련과 동구라파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된 엄혹한 정세속에서도 우리가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기치를 고수해 나가자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우리 나라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우리 공화국을 압살해 보려고 책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일부 불순세력들을 내세워 우리의 두개 군사대상에 대한 ≪특별사찰≫을 강요해 나섬으로써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부당한 요구와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최고리익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서의 탈퇴를 선포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의 ≪핵문제≫를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끌고 가 우리가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복귀하지 않으면 그 무슨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해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그 어떤 압력과 위협공갈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지금 ≪핵문제≫를 가지고 조미회담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원칙을 양보하지 않을것입니다.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는것은 우리가 오래전부터 간직하고 있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그전에 쏘련 원동지방과 중국 동북지방에서 레닌에 대한 찬가를 많이 불렀는데 그 노래가사에 레닌을 로동자의 사랑동, 자본가의 미움동이라고 한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12살때부터 그 노래를 부르며 혁명을 할 각오를 다지였습니다. 로동자들에게는 사랑동이 되고 자본가들에게는 미움동이 되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적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대하여 조금도 두려워 하지 않으며 적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원칙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핵문제≫를 걸고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지만 결코 우리 인민을 굴복시키지 못할것입니다. 우리는 적들의 책동에 단호히 맞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고수해 나갈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혁명하는 시대, 투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혁명의 길에는 일시적인 난관도 있을수 있고 시련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것만큼 동무들은 일시적인 애로와 난관에 동요하지 말고 동포들속에서 조국통일운동을 더 과감히 벌려나가야 합니다.

동무들이 조국통일운동을 힘 있게 벌리자면 무엇보다도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서 살고 있는 모든 동포들을 조선통일촉진위원회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 세워야 합니다. 동무들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의 신문사를 내온것은 잘한 일입니다. 동포들을 각성시켜 조선통일촉진위원회의 두리에 묶어 세우자면 신문사를 내오고 신문발행부수를 늘여 모든 동포들이 다 신문을 보도록 하여야 합니다.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 조선사람들이 적지 않게 살고 있는데 신문을 많이 발행하면 동포대중을 교양하는데서 큰 효과를 볼수 있을것입니다.

동포들속에서 조국통일운동을 힘 있게 벌리기 위하여서는 예술축전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행사들을 많이 조직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동무들이 모스크바에 있는 국회쎈터회의실에서 조선통일촉진위원회 제2차대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동포들속에서 조선통일촉진위원회의 권위가 높아 지고 그들의 사기도 오르게 될것입니다.

동무들은 동포청년들과의 사업도 잘하여야 합니다. 동무들이 9월에 모스크바에서 동포청년대회를 열고 청년조직을 내오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청년조직을 내오고 거기에 모든 동포청년들을 묶어 세우면 그들이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것입니다.

동무들은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서 살면서 조국통일운동을 하고 있는것만큼 그 나라의 공산당과 공청조직을 비롯한 진보적인 정당, 사회단체들과 련계를 밀접히 가지고 공동투쟁을 적극 벌려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은 반드시 승리할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동무들이 독립국가협동체나라들에서 조국통일운동을 더욱 힘 있게 벌려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끝)

2권 제4장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던 나날에

1. 손정도목사
2. 준엄한 봄
3. 카륜회의
4. 첫 당조직-건설동지사
5. 조선혁명군
6. 혁명시인 김혁
7. 1930년 여름
8. 두만강을 건너
9. ≪리상촌≫을 혁명촌으로
10. 잊을 수 없는 사람들

8. 두만강을 건너(2)

내가 온성지구에 나오게 된 것은 국내에 당조직도 내오고 카륜회의 방침도 실현하기 위한 대책도 세워 전반적 조선혁명을 확대발전시키자는 것이였다.

석현에서부터 우리와 동행한 오중화는 사촌동생이 먼저 우리가 간다는 것을 연락하기 위하여 오중성이 있는 풍리동으로 건너갔다.

우리는 온성군 남양대안인 희막동 어느 골안어귀에서 연락을 받고 온 오중성동무와 그밖의 조직성원들을 만났다. 오중성과는 그때 처음으로 상봉하는 셈이였다. 형인 오중화보다는 허우대가 크고 성격이 호방한 사람이였다. 오중화는 자기 동생이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시도 잘 읊는다고 하였다.

우리는 밤에 배를 타고 조용히 두만강을 건넜다. 오중성은 노도 걸싸게 잘 저었다. 어둠속에 묻힌 산야를 바라보느라니 5년만에 조국땅을 다시 밟는 감격으로 가슴이 울렁거려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남양상탄에서 배를 내린 다음 오중화에게 나라를 독립하고 이 강을 건는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하였다.

오중화는 내 말을 긍정하며 자기도 두만강을 건널 때면 매번 그런 감정에 잠긴다고 하였다.

남양상탄마을을 지나 남양산으로 오르는 고개길에 들어선 우리는 오중성이 미리 마련해놓은 초막에 들어가 온성지구 혁명조직들의 활동정형과 군중들의 동향을 료해하였다.

온성사람들이 대중조직을 내오는데서 거둔 성과가 적지 않았다.

나는 한주일동안 국내지하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였다. 그 과정에 온성지구 혁명가들이 국내도처에 많은 조직들을 내오기는 했지만 그 조직들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심한 소극성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파악이 있는 몇몇 정수분자들로 조직을 꾸린 다음에는 문을 닫아매고 그 대열을 늘리지 않는 것이 이 일대에서는 보편적 현상으로 되고 있었다. 이런 원인으로 하여 조직들은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를 박지 못하고 있었다.

1929년 봄에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의 산하조직으로 무어진 온성공청도 몇몇 안되는 성원들로 울타리를 높이 두르고 대중속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다. 지방회니, 신흥회니, 신간회니, 당재건파니 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과 파벌들이 경쟁적으로 청년들을 끌어당기고 있는 실정에서 나쁜 바람이 조직에 흘러드는 것만이라도 막아보려고 전전긍긍하면서 현상유지나 하고 있는 형편이였다.

내가 풍리에서 만난 어떤 공청일군은 원수들의 책동이 심해지니 사람들이 통 곁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 어떤 공청일군은 청년동맹이나 신간회에 관계한 청년들을 어떻게 대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였다. 풍인동농민협회 책임자로 일하고 있던 전장원이란 사람은 자기 친척들 가운데 구장, 면장, 순사질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 줄을 타고 적들의 마수가 혁명대열에 뻗쳐올까봐 신경을 도사리면서 가까운 친척이라 해도 적의 통치기관에서 복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곁을 주지 않고 있었다.

전장원

이것이 다 대중을 믿지 않는 표현이였다.

이런 폐단을 없애지 않고서는 온성지구에서 새로운 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을 심화발전시킬 수 없었다.

혁명가의 일생은 대중속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고 혁명의 실패는 인민대중의 힘을 믿지 않고 인민대중속에 들어가지 않는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오중성에게 간절한 심정으로 말하였다.

출신이 좋은 몇몇 사람들만으로는 혁명을 할 수 없다. 대중을 대담하게 믿고 그들을 위해 조직의 문을 넓게 열어놓아야 한다. 형형색색의 간판을 가진 청년들이 저마다 청년들을 끌어당기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공청조직을 피동에 빠지지 말고 적극적인 공세를 벌려 많은 청년대중을 전취해야 한다. 청년동맹이나 신간회 조직들에 관여했던 청년들, 당재건분자들에게 붙어다니다가 무의식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는 청년들도 잘 깨우쳐주고 이끌어주어 한 사람한 사람씩 우리 편에 쟁취해야 한다.…

전장원동무들에게도 적기관 복무자들과의 사업에서 나서는 전술적 원칙들에 대하여 말해주었다.

혁명을 하는 사람은 가문에 구장, 면장, 순사가 있다고 놀라거나 축잡혀서는 안된다. 동무는 오히려 그러한 친척관계들을 타고 적통치기관에 들어가서 왜놈들의 말단통치기구를 마비시켜 놓고 판을 크게 벌일 잡도리를 해야 한다. 온성을 비롯한 륙읍일대를 무장투쟁의 전략적 거점으로 꾸리자면 대중을 혁명화하는 것과 함께 적통치기관 복무자들을 대담하게 전취하여야 한다. 적기관 복무자들을 전취하는 사업에서 한번 경험을 쌓아보라.

온성에 갔을 때의 일가운데서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것은 김준, 오중화, 오중성 동무들과 함께 마포면 월파동철도부성공사장에서 로동자들을 만나던 일이다.

일제는 1929년초부터 두만강연선에서 철도부설공사를 다그치었다. 삼남지방을 비롯한 국내각지와 간도에서 1000여명의 인부들이 모여들어 월파마을에 개풍거리라고 부르는 번잡한 주민지구를 만들어놓았다. 길회선철도부설공사장에 가있던 인부들도 이 거리에 밀려들어 벌이를 하느라고 고역을 치르었다.

나는 길림에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김준을 만나 월파동에서 철도부설공사가 벌어지고 있다면 로동자들속에 뚫고 들어가 조직을 꾸려보라고 하였다.

김준동무도 한번 해볼만 한 일이라고 하면서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후 그는 나와 약속한대로 온성에 들어가 월파동에서 로동청년회와 반제청년동맹을 조직하였다.

그때 그들은 ≪국제당파견원이 왔다≫고 하면서 내 신변을 보호해주느라고 여간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들이 나에게 ≪국제당파견원≫이라는 직함까지 붙이면서 호위조직을 면밀하게 해준 것은 국내에서 혁명가들에 대한 일본경찰의 감시와 경계가 그만큼 심하였기 때문이였다.

물론 나도 조선에 나오면 매사에 조심해야 하며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로동자들속에 들어가서 당장 큰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손을 잡고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은 심정이였다. 내가 그때까지 청년학생들과의 사업을 해온 것은 다 로동계급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다리를 마련하자는 것이였다. 우리의 종국적 목적은 로동계급을 내세워 조선혁명을 개척하고 완성하자는 것이였다.

로동계급의 해방을 강령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위해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칠 것을 맹세한 그날부터 우리는 얼마나 조선의 로동계급을 그리워하였던가.

나는 공사장에 들어가 하루반동안 로동자들과 함께 자갈도 부리고 모래도 나르고 ≪함바≫(로동자숙사)밥도 먹어보았다 김준은 나를 연길에서 공부를 하다가 학비를 보태려고 온 동무라고 소개해주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내가 로동자들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주 유익하였다고 생각한다. ≪함바≫나 공사장에서 내가 본 것은 몇 푼을 품삯을 벌기 위해 아득바득 애쓰는 로동자들의 비참한 군상만이 아니였다. 나는 거기서 투쟁을 갈망하는 로동자들, 자기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개척해줄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찾아 헤매는 로동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그 모습은 나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었다. 내 가슴은 로동계급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치고 싶은 열망으로 불탔다.

나는 그때 철도부설공사장에서 온성출신의 항일투사들인 최춘국, 최봉송 동무들과도 처음으로 낯을 익히었다.

최춘국은 숙사로 나를 안내하면서 자기가 남포군으로 일하는 동안 비밀리에 화약을 모아두었는데 공사가 완공되는 날 그것을 차굴을 폭파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에게 지금 형편에서는 차굴을 폭파하는 것과 같은 모험을 하는 것보다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로동자들을 의식화, 조직화하는 것이 더 절박하니 화약은 두었다가 앞으로 무장투쟁을 할 때 요긴하게 쓰자고 하였다.

나는 그때 로동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장투쟁문제, 당창건문제, 반일민족통일전선문제도 내놓고 이야기해주었다. 국내에 와서 로동자들에게 카륜회의 정신만 똑똑히 심어주어도 그것은 큰 소득이였다. 우리가 한 사람에게 말하면 그것이 곧 열사람에게로 번져가고 백사람, 천사람의 입을 거쳐 만사람의 귀에까지 들

어가면 종국적으로 우리의 사상이 국내인민들의 신념이 되고 기반이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었다.

철도공사장 로동자들은 우리의 로선을 알게 되자 그것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들이 우리의 로선에서 신심을 얻었다면 나는 그 로선을 접하고 기쁨을 금치못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신심을 얻었다.

온성에서 혁명조직을 돌아보는 과정에 나는 이 일대의 혁명가들이 비록 전략적 문제에 대한 이해에서 몇 가지 착오를 범하고 있고 군중과의 사업에서 소심성을 보이고 있지만 그들의 투쟁각오와 군중과의 준비정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으며 온성지구에 당조직을 내올 수 있는 기초가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회의에 참가할 온성지구의 혁명가들은 모두 나뭇꾼차림으로 두루봉에 모이었다. 전장원은 월파동의 조직책임자에게 부탁하여 회의장 가까이에 소발구까지 끌고오게 하였다.

우리는 월파천을 옆에 끼고 있는 두루봉산상의 아늑한 공지에서 국내당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모임을 가지었다.

나는 먼저 회의참가자들에게 카륜에서 채택된 노선을 전달하고 그 노선을 관철하기 위해 선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혁명적인 당을 건설하는 것임을 밝힌 다음 온성지구에서 새형의 당조직을 내오게 되는 취지를 설명하였다. 그리고 조직생활과 실천을 통해 검열된 우수한 선진분자들로 당대열을 부단히 확대강화할데 대하여서와 대중을 반일투쟁에 조직동원할데 대한 온성지구 당조직의 과업을 제기하였다.

나의 제의에 의하여 오중성, 전장원, 전창룡, 최춘국, 최봉송, 최근주 동무들이 온성지구 당조직에 가입하였다. 당조직책임자로는 오중성동무가 선거되었다.

당원의 영예를 지닌 사람들은 차례로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의 경력을 소개하고 간단한 결의를 하였다.

그들의 결의토론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렸는데 전장원의 결의만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전장원은 자기와 같이 가정성분이 복잡한 인간을 당에 받아준 것을 백골이 진토가 되어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혁명을 위해 필요하다면 뼈도 깎고 살도 저미고 쓸개까지도 바치겠노라고 맹세하였다. 그는 자기가 만약 이 맹세를 저버리는 용렬한 인간이 되거든 자기 육신을 란도질하여 개천에 내던져도 좋다고 하였다. 과격하고 소박한 말이였지만 솔직한 심정토로였다.

전장원은 그후 자기 결의대로 온성을 반유격구로 꾸리고 조선인민혁명군을 원호하는 데서 큰 공로를 세웠다.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임에서 토론된 문제들은 일제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그 회의에서는 창립선언문이나 취지서 같은 것도 채택하지 않았다.

모임에 참가한 온성사람들은 당조직을 내오는 역사적인 회합인데 간소하고 격식이 없이 허전하다. 형평사 같은 백정들의 조직들에서도 발기취지문이라는 것을 발표하여 세상에 내돌리는데 몇 마디 맹세로 회의가 결속되니 너무 승승한 감이 난다고 하였다.

나도 동무들이 다진 맹세가 몇백페지의 선언문이나 취지서보다 훨씬 더 실속있는 것이다. 문서장이나 자꾸 만들어서는 뭘하겠는가, 소문이나 내고 이름이나 날리는 곳이 당조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소문은 내지 않으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당원들이니 동무들은 실천투쟁을 통해 당성과 애국심을 과시하라고 그들을 격려해

두루봉 당조직결성모임때 정면에 걸었던 기발

주었다.

온성지구에 당조직이 나온 것은 국내에서 당건설의 기초를 축적하는 돌파구로 되었으니 국내인민들의 반일투쟁을 떠밀어주는데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되었다. 온성지구 당조직의 활동에 의하여 륙읍일대에서는 대중의 의식화, 조직화 과정이 빠른 속도로 다그쳐지고 반일투쟁이 앙양되었다.

대중이 우리를 따르게되고 혁명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고조되자 이 일대에 와서 자파의 세력을 늘이려고 돌아다니던 최창익도 고향을 떠나 서울로 달아나버리었다. 해방후 그가 그때에 있은 일을 우리에게 솔직히 실토하였다. 온성이 고향이기 때문에 거기에 엠엘파가 들어간줄 알았는데 정작 가보니 우리 세력은 없고 길림바람이 들어왔습디다, 그 바람이 어떻게나 세게 들이불었던지 온통 **김일성**동지네판이더란 말입니다, **김일성**동지의 년세가 많은줄 알았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그런 것은 아니고 20대 청년인데 드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갈까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최창익은 온성에 있다가 서울로 가버린 것은 우리가 종파를 싫어하며 자기네처럼 종파를 하는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당조직을 결성한 다음 그 자리에서 륙읍일대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공작원들과 지하혁명조직 책임자들의 회의를 지도하고 귀로에 올랐다. 나룻배를 타고 어정나루로 해서 강을 건넜는데 오던 때보다 마음이 퍽그나 가벼웠다. 일이 뜻대로 되고 보니 하늘에라도 날아오를 것 같은 기분이었다. 사선을 헤치고 모험을 하면서 조국을 찾아온 보람이 있었다.

조국에서 보낸 한주일은 우리가 카륜에서 제기한 혁명로선이 만민이 접수할 수 있는 옳은 로선이라는 것을 실증해주는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우리는 조국의 인민들에게서 우리의 로선을 판증받은 셈이었다.

그때부터 온성사람들은 줄곧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하였다.

두만강을 무사히 건너간 나는 오중화의 안내로 대안의 량수전차와 장골을 거쳐 연길현 조양천에 이르렀다. 조양천은 룡정과 함께 연길지방에서 우리의 영향이 제일 크게 미치던 곳이었다.

조양천에서는 역섬지구 당 및 공청비서처 성원들인 마득한과 라일 동무가 활동하고 있었다. 훗날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한 림춘추동무도 조양천에서 ≪봉춘당약방의사 림춘봉≫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혁명사업을 하였다. 연길로 오기전에는 학생사건으로 피검되어 감옥살이를 하였다. 그는 동의사노릇을 하면서 역섬지구 당 및 공청비로서와 각 현사이의 연락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나는 그때 조양천에서 처음으로 림춘추동무와 만났다. 내눈에는 젊은 나이에 동의기술을 터득해낸 그가 퍽그나 인상적으로 보이었다. 그의 동의기술때문에 항일무장투쟁 전기간 우리 유격대원들이 덕을 많이 입었다.

5.30폭동과 8.1폭동은 연길의 혁명조직들에도 많은 피해를 주었다. 여기는 돈화보다 적들의 테로가 더 심했다. 혁명을 하던 사람들은 위축되고 동요하였고 각성이 부족한 군중은 ≪공산당때문에 망한다≫고 아우성이었다.

나는 마득한, 라일, 림춘추동무를 비롯한 당과 공청의 지도간부들을 만나 좌경모험주의적 책동의 후과를 시급히 청산하고 혁명투쟁을 더욱 확대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가지고 토의하였다.

내가 온성을 떠난 후 오가자로 곧추 가지 않고 량수천자를 거쳐 조양천에까지 굳이 들린 것은 이 일대가 장차 우리가 벌이게 될 무장투쟁마당으로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다보았기 때문이었다. 나로서는 앞으로 벌어지게 될 무장투쟁에 대처하여 온성과 왕청, 연길에서 대중적 지반을 축성하기 위한 기초작업을 한 셈이었다.

그후 우리가 예상했던대로 이 일대는 항일전쟁의 가장 믿음직한 근거지로 되었다.

(끝)

첫 국내당 결성장소 기념비

일화

군인들의 문화정서생활도 보살피시는 장군님

1996년 6월 어느 날 동해안을 지켜 선 어느 한 부대를 현지시찰하신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의 문화정서생활을 다양하게 조직하여야 하겠다,

군인들의 문화정서생활을 다양하게 조직하여 주어야 부대안에 전투적기백과 혁명적랑만이 차넘칠수 있으며 군인들이 군무생활을 잘할수 있다고 가르치시였다.

군인들의 기쁨과 웃음, 랑만에 넘쳐 생활하도록 하시려는 사려깊은 말씀이였다.

그분께서는 군인들속에서 주패(트럼프)와 윷놀이 같은 대중오락을 많이 할데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주패놀이를 할수 있게 시간도 보장해 주고 지휘성원들이 군인들과 함께 주패를 하면서 간격없이 생활할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였다.

또한 인민군대에서 윷놀이를 장려할데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윷놀이에서 나서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가르쳐 주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그전까지는 트럼프나 윷놀이 같은 오락을 장려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것만큼 장군님께서 군대내에서 트럼프와 윷놀이도 하도록 하신것은 하나의 전환적인 조치라 하지 않을수 없다.

군인은 총을 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다. 인간에게는 정서가 있으며 정서생활은 인간생활의 중요방식이다.

군인들이 문화정서생활을 다양하게 하도록 하는것은 그들의 정서를 더욱 풍부하게 하고 군무생활을 보다 락천적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성과적인 군무수행의 밑거름이 되게 한다.

이것이 군대내에서 트럼프와 윷놀이를 하도록 장려하신 장군님의 의중이시며 주체의 인생관, 정서관을 지니고 계시는 그분께서만이 취하실수 있는 전환적조치라고 생각한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고 장군님께서 군인들의 사상문화교양과 문화정서생활에 무게를 두시니 인민군군인들이 오늘 수령결사옹위의 사상감정에 불 타고 승리의 신심높이 혁명적락관과 랑만에 넘쳐 생활하고 있는것은 당연지사인것이다.

김정일장군은 웃음으로 시련과 난관을 이겨 내시고 전군, 전민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높이 부르며 승리의 락관에 넘쳐 고난의 길을 헤쳐 나가도록 하시는 위대한 락천가이시며 여기에 바로 다른 령장들과 구별되는 장군님의 류다른 풍모가 있다고 경모하게 된다.

송시

새 천년은 장군님세상

손에 손 잡고서 새 천년 마중가자
남과 북 한맘으로 새 천년 노래하자
태양도시 평양에서 밝아온 삼천리
민중의 세상으로 복락하리라
아 새 천년은 장군님세상
천만년 무궁할 **김정일**장군님세상

가슴을 열고서 새 천년 안아보자
우리의 손으로 새 천년 가꾸어가자
태양조국 이북에서 펼쳐진 삼천리
자주의 강국으로 떨쳐가리라
아 새 천년은 장군님세상
천만년 무궁할 **김정일**장군님세상

흠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모신 축등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를 모신 축등은 1986년 7월 프랑스 뽀와띠에종합대학 교수방법연구학부 학부장 프랑쏘와 마르쉐쏘가 그이께 올린 선물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초상화를 중심부분의 원형틀안에 모신 이 장식등은 직경 22㎝, 높이 75㎝로서 전원을 연결하면 전구에 불이 켜지면서 조명장치부분이 천천히 회전하는데 그 순간 수백 수천 오리로 늘어진 유리섬유 끝에서 오색 영롱한 빛발이 펼쳐져 현란하고 우아하기 이를 데 없다.

프랑스의 한 교육가가 이 뜻깊고 이채로운 선물을 마련하게 된 데는 깊은 사연이 있다.

프랑쏘아 마르쉐쏘는 뽀와띠에종합대학의 오랜 교수이다.

그는 한때 유럽을 진감했던 인문주의에 공감하기도 했고 과학적 공산주의에 이끌리어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동경하면서 청년학생들을 깨우쳐주기 위한 활동도 벌이었다.

그러나 황금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인간의 이성도 돈에 의하여 질식당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의 학자적인 양심과 교육자적인 염원은 결코 존중시될 수도 실현될 수도 없었다.

하여 그는 교육가의 양심마저 짓밟히는 현실을 개탄하며 조용히 서재에 묻혀 어학을 연구하면서 여생을 보내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그를 참된 진리의 길로 이끌어준 등대가 있었으니 그것은 위대한 주체사상이었다.

주체사상을 받아 안게 된 그는 서재에서 뛰어나와 대학의 이름 있는 교수들과 함께 주체사상연구에 정열을 쏟아 부었다. 주체사상은 그의 온 넋을 사로잡았다.

그에게 있어서 주체사상은 참말로 인간과 인류를 위한 참된 복무의 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횃불이었다.

그는 크나큰 감동과 흥분 속에서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의 고전적 노작들을 탐독하면서 주체사상의 원리들을 연구체득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었다.

이러한 때에 뽀와띠에종합대학에 우리 나라 어학실습단이 도착하게 되었다.

그는 우리 나라 어학실습단 성원들을 통하여 주체사상의 심원한 원리와 특히 주체사상의 보물고를 끊임없이 발전풍부화시켜 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비범한 사상 이론적 예지와 업적에 대하여 더욱 깊이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전적 노작들을 밤새워 열심히 탐독하였다.

그가 커다란 매혹을 가지고 학습한 것은 노작 ≪영화예술론≫이었다.

이 노작은 인류문예사의 새 시대를 열어준 불멸의 총서였고 문예학의 참신한 교과서였다.

세계의 모든 문예인들은 응당 이 노작을 학습하고 창작의 원칙과 방법론을 배워야 한다고 그는 확신하였다.

그는 프랑스사람으로서 노작 ≪영화예술론≫의 첫 독자로 된 자기가 이 노작의 프랑스문교열을 직접 맡아하겠다고 자진해 나섰다.

그리하여 그는 400페이지가 훨씬 넘는 이 노작의 프랑스어번역문을 5개월 동안이나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고 교열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리 나라 어학실습단이 얼마 후 프랑스를 떠나 귀국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우리 나라 어학실습단이 조국으로 돌아가는 기회에 주체적인 미학관만이 아니라 세계관을 정립해 주시었으며 프랑스에서 위대한 노작의 첫 독자, 교열자의 영광을 지니도록 하여주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자기의 진정을 어떻게 표시할 것인가를 여러 날 동안 모색하고 고심하던 끝에 자기의 흠모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하여 그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사상이 온 세계를 밝게 비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답고 고상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뜻을 조형적으로 형상한 축등을 선물로 선정하게 되었다.

그는 그것을 파리에 있는 재능 있는 세공사에게 특별히 주문한 다음 그와 지혜를 합쳐 선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마련한 선물을 우리 나라 어학실습단 단장에게 전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나는 매우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존경하는 **김정일**각하의 위대성을 체득하고 그이의 유명한 노작들을 학습하게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 시대의 문예총서인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의 고전적 노작 ≪영화예술론≫프랑스어 번역문의 교열자로 된 것을 나에 대한 그이의 높은 신임의 표시로, 가장 큰 특혜로 생각합니다. 그이는 위대한 사상이론가, 위대한 실천가이시며 위대한 교육의 대가이시고 예술의 천재이십니다. 나는 노작 ≪영화예술론≫번역문을 교열하면서 하나의 예술종합대학을 나왔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각하께 이러한 심정을 담아 이 축등을 선물로 드립니다.≫

진짜 ≪악의 축≫은 미국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 네, 안녕하세요.
사회자 : 아프가니스탄전쟁의 종결을 계기로 기고만장해진 미국대통령 부시가 반테러전쟁의 폭을 넓히려는데로부터 이북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을 ≪악의 축≫이라면서 이 나라들을 고립압살하려고 책동하고 있어서 내외의 항의와 규탄, 배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진짜 ≪악의 축≫은 미국, 이런 화제로 얘길 나눴으면 해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김현규 : 아시다시피 지난 1월 30일 미국대통령 부시는 ≪연두교서≫에서 이북의 대량살육무기의 개발보유를 운운하면서 ≪악의 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과 이란, 이라크가 미국과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는 망언을 늘어놓았는데요. 그는 이 세 나라를 염두해두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폭언했습니다. 부시는 그후에도 기회있을 때마다 ≪악의 축≫망언을 제창하고 일본과 한국행각시에는 ≪악의 축≫망언을 더욱 노골화했습니다. 부시의 ≪악의 축≫망언에 대해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과 국제 여론들은 그 부당성과 허황성을 강력히 규탄, 배격하고 있는데요.
사회자 : 그렇죠. 부시가 이북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을 ≪악의 축≫으로 묘사한 것은 거꾸로 된 날강도적 논리입니다. 사실상 미국은 세계에서 악의 제국이며 악의 원흉이 아닙니까. 이건 미국이 걸어온 행적을 봐도 잘알 수 있다고 봐요.
김현규 : 18세기 인디언의 시체위에서 솟아난 미국이 침략과 전쟁, 파괴와 약탈, 살육으로 자기 생존을 유지하고 번영의 길을 걸어왔다는 건 세인들이 다 인정하는 역사의 진실이 아닙니까. 미국의 성조기에 새겨진 50개의 별 하나하나도 침략과 전쟁으로 일관된 미국의 역사를 보여주는 산증거물입니다. 지난 20세기에 있은 한반도전쟁과 월남전쟁, 그레나다침공과 파나마침공, 걸프전쟁과 발칸전쟁 등은 예외없이 미국에 의해 감행된 악의 전쟁들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무력간섭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가 하는 건 냉전이 종속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수가 무려 40여차나 되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사회자 : 미국은 저들의 국익을 위해서는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침공도,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죽이는 악한 짓도 서슴없이 감행하고 있잖아요.
김현규 : 그렇죠. 미국은 걸프전쟁을 축으로 하여 이라크의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을 학살했고 이 나라에 오랫동안 제재를 실시해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게 했습니다. 또 미국주도하에 감행된 나토의 유고슬라비아공습에서도 무차별적인 파괴와 유혈참극을 빚어냈습니다. 미국이 이번에 반테러의 이름밑에 진행한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도 수많은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적 공격과 살육만행도 사실 미국의 지지, 비호밑에 감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 미국은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전쟁과 내란들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개입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 미국이 악의 왕국이라는 건 해방자의 탈을 쓰고 이 땅을 강점한 첫날부터 이 땅에서 감행한 살인만행을 놓고봐도 잘알 수 있다고 봅니다.
김현규 : 그렇죠. 미군의 발길이 닿는 이 땅에서는 그 어디에서나 무고한 주민들이 무참히 살육당했습니다. 1949년 한해 동안에만 해도 무려 10만9000여명의 주민들이 미군에 의해 잔인하게 학살되었습니다. 또한 6.25전쟁이 발발했을 때에는 이남 전지역에서 1년기간에 미군에 의해 무려 100여만명이나 되는 무고한 주민이 잔인하게 학살됐고 이북 지역에서는 180만명의 주민들이 학살됐습니다. 그러나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미국은 오늘까지도 저들의 양민학살만행에 대해 그 어떤 인정도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는 미군에 의한 살인, 강간, 강도, 폭행으로 주민들의 피가 흐르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세상에 알려진 것만 해도 주한미군이 저지른 만행수는 8.15이후 오늘까지 무려 27만여건에 달하고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휴전초부터만해도 수십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렇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악의 역사이고 미국의 대외정책은 악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제조약이나 국제규범들을 제멋대로 짓밟으면서 남을 희생시키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잖아요.
김현규 :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13일 구소련과 체결한 요격미사일제한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세계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군비경쟁을 초래할 미사일방어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시가 다음 회계년도에 현 회계년도보다 480억달러나 더많은 3790억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하려 하고 있는 것과 미국이 해상요격미사일시험을 진행한 것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무기고들에 가득 채우고 있는 미국이 이것도 부족해 성능높은 핵무기를 더많이 개발생산하려 하는 건 세계제패 야망을 위해 인류멸살도 서슴지 않으려는 범죄적 기도를 드러내놓은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자기 나라 독점자본의 이익을 위해 지구환경을 파괴하고 인류에 생존의 위협을 주는 독선행위도 거리낌없이 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구온난화방지를 위한 국제협정인 교토의정서이행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만 봐도 잘알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이야말로 세계 최대의 불량배국가이며 악의 왕국이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렇죠.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가 이북을 ≪악의 축≫이라고 폭언한 건 아프가니스탄전쟁의 불길을 한반도에로 옮기려는 기도에서 출발한 거라는 여론이 분분한데요.
김현규 : 옳습니다. 그건 지금 미국이 이북에 테러지원국, 불량배국가라는 모자를 덮씌우는가 하면 인권과 종교, 핵문제, 심지어 이북에 대량살육무기개발과 상용무력축감문제까지 걸고들면서 반북적대시정책을 강화하고 있는데서 잘알 수 있습니다. 부시는 이북을 악으로 몰아붙이며서 제2의 북침전쟁을 일으키려고 지난 2월에 한국행각을 했고 실제로 그 실천을 위한 대규모 전쟁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자 : 제반 사실은 미국이야말로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악의 제국, 악의 왕국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계 국민들은 악의 원흉이며 악의 왕국인 미국에 의해 한반도정세가 날로 긴장해지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통일조국을 안아오기 위해 반미반전, 주한미군철수투쟁에 적극 나서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김현규 : 감사합니다.
사회자 : 미국은 최근 10여년 기간에만도 노골적인 국가테러로 지구촌의 수없이 많은 무고한 양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는데요. 죄는 지은 대로 가기 마련이죠. 악을 일삼는 미국은 악으로 망하고야 말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1일 ~22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22일

김정일영도자님의 정치력 격찬
대구의 재야인사

대구에 사는 재야인사 이정훈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정치력을 높이 격찬했습니다. 그는 지난 19일 동료들과 사업차 중국방문중에 중국 고찰단이 방북촬영한 ≪아리랑≫공연 광고장면을 본 소감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서 이북의 ≪아리랑≫공연을 볼 기회를 놓치면 일생을 두고 후회한다는 말이 우연한 것이 아니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이북의 ≪아리랑≫공연에 대해 감히 말할 수 없다. 레이다조명과 환상을 배합한 배경판의 신비한 조화,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기교, 세련되고 우아한 집단체조와 민족적 향취가 풍기는 노래와 춤. 정말 매 장면들이 체육과 예술, 최첨단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얼마나 신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 황홀함은 컴퓨터환상으로도 그려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계속해 만사람이 하나의 음악에 맞추어 손색없는 집체율동으로 천만갈래의 기교를 펼쳐보이는 모습에서 일심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북 민중의 단결된 위력과 조직력을 보았다며 이북의 ≪아리랑≫공연이야말로 **김정일**영도자님의 탁월한 정치지도력의 과시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합동군사훈련 규탄성명
범민련 남측본부

범민련 남측본부는 15일 ≪6.15공동선언이행으로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을 제거하자≫라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핵전쟁위협이 공공연히 진행되는 가운데 대규모 통합군사훈련이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지를 기어이 꺾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부시행정부는 세계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야망아래 북미합의문을 짓밟고 우리 민족에게 핵무기를 들이댄채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성명은 이번 대규모 통합군사훈련은 전쟁초기상태를 가상해 이북 전지역에 대한 점령까지를 포함하는 ≪5027-98≫작전계획에 의거한 훈련으로써 대단히 적대적이며 공격적인 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6.15공동선언합의이후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지속된 것도 민족의 합의를 파탄낼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인데 최근들어 합동훈련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남측당국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민족분열정책을 수용한 것으로써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매국배족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을 넘나들며 민족을 외면한채 미국의 적대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동조한 이회창 등 정치권의 행위는 전국민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미국을 반대하고 전쟁을 반대하는 실천으로 한결같이 나서자면서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민족의 미래를 사수하자고 호소했습니다.

통합전쟁연습을 반대 기자회견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의 주최로 7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규모 통합전쟁연습을 반대해 20일 미국대사관옆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우리 땅을 전쟁터로 만들 수 없으며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 땅이 잿더미로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현숙 상임대표가 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회견문은 이번 대규모 통합전쟁연습은 부시의 ≪악의 축≫발언으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때에 실시되는 것으로 해서 그 위험성이 더욱 심각하다면서 우리 민족은 결코 전쟁을 원치 않으며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전쟁을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선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회견문은 50만명이상의 무력이 참가하는 이번 훈련은 전쟁발발초기를 가상한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는 전면적인 전쟁연습이라며 군사적 힘으로 이북을 붕괴시키려는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정책의 연장이라는 점에서 위험하기 그지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회견문은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원인이 미국이 북미간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깨고 힘으로 북을 굴복시키려는 적대적인 전쟁정책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 땅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려는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회견문은 또 미국의 전쟁정책에 편승해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며 민족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고 6.15공동선언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당국의 사대매국적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회견문은 전쟁연습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며 반전평화운동을 더욱 힘있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회견이 끝난 다음 통일연대 한상렬상임대표가 핵전쟁연습을 반대하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합동기자회견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단식농성과 시위, 집회 등을 본격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의 노래를 두고

가요가 대중속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광범위하게 파급되는가 하는 건 가요가 민중의 마음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가에 관계된다 하겠죠. 민중의 심정에 꼭맞는 가요는 세상에 나오기 바쁘게 바람찬 불길처럼 파급되기 마련인 겁니다. 지금 경향각지에 순간에 파급된 가요 ≪기특한 과자≫가 바로 그런 성공한 노래라고 할겁니다. 가요 ≪기특한 과자≫에는 ≪악의 축≫망발을 쏟아놓으며 한반도정세를 전쟁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는 3점짜리 깡패대통령 부시에 대한 우리 민중의 조소와 증오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하겠죠.

서울서 사시는 지식인 이명진씨의 글 ≪한편의 노래를 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임기수씨입니다.

한편의 노래에 천하가 비낀다.

최근 경향 각계에 선풍적 인기를 끌며 널리 애창되고 있는 가요 ≪기특한 과자≫가 이를 웅변한다. 과자를 먹다 졸도한 부시를 풍자적으로 조소한 이 가요에는 오늘의 시대상이 묻어 있고 민심의 향내가 살아넘친다. 노래는 의인화한 과자의 형상을 통해 미국을 악의 조소하는 민중의 정서를 생동감있게 보여준다.

과자야 과자야 기특한 과자야
부시를 쓰러뜨린 힘센 과자야
세상 사람들 억울한 마음 달래주려고
네몸을 던져 장렬히 산화했구나

씹히면서도 끝끝내 부시를 쓰러뜨린 과자. 이 과자를 애정안고 예찬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 민중이 누구를 선으로 보고 누구를 악으로 보는가를 확연히 증시한다.

세상에 다 알려진 것처럼 미국에서의 대규모 습격사건이 발생한직후 부시는 세계를 두개의 극단으로 양분했다. 이른바 선과 악이 그것이다.

미국은 자유와 정의의 기수이기 때문에 선이며 역설적으로 이에 반하는 것은 악이라는 논리이다. 부시의 이 단순명쾌한 논법이야말로 미숙아의 유치한 사고방식이고 자아중심주의자의 병적 증세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의 자유의 화신도, 정의의 상징도 아니다. 부정의의 본산이고 예속과 억압의 원흉이다. 타민족의 피로 매닥질되어 있는 미국의 근대사는 한 근대사, 한 행정부의 집권행적 사례만 들여다봐도 십분 알 수 있다.

부시가 백악관에 들어앉아서 한 짓이란 ****시대와 **한 민중의 지향에 역행하는 망동질뿐이다. 특정 국가에 의한 지배주의적 질서를 배척하고 다극화에로 나가는 것은 현시대의 추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미행정부는 냉전시대의 퇴행적 통념에 불과한 일방주의, 단독주의로 고집스레 향했다. 교토협정의 거부와 ABM조약에서의 일방적 탈퇴, 천문학적 액수의 군사비 등은 미국이 21세기에 누리는 야망이 무엇인가를 재론의 여지없이 보여준다.

부시의 용납못할 악행은 대북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현행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전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북미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선회시켰다. 그들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미군규모를 줄이면서도 오히려 주한미군전력을 증강, 첨예화하고 있다.

당근을 배제한 채찍사용이라는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인해 화해의 움트기가 시작되던 한반도에는 또다시 긴장격화의 신냉전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바야흐로 밝아오는 통일의 희망에 가슴부풀어 오르던 우리 민족은 또 한번의 좌절을 강요하는 미국에 대한 증오로 비분강계해 간다.

지난 2월 부시의 방한을 계기로 화산처럼 분출한 반미반부시열풍은 우리 민중의 반미감정이 어디까지 도달했는가를 직시케 하는 비상등이다.

부시의 ≪악의 축≫발언과 대북강경책을 반대해 전국연합, 통일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연 800여개의 투쟁 및 시민단체들이 연일 항의성명, 반미결의대회, 반미공동기자회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2월 6일에는 하루동안에만도 반미시위와 행사가 10여건이나 진행됐다.

오늘 이 땅에 몰아치는 반미반부시감정은 사품치는 물처럼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요원의 불길처럼 타번지지 않는데가 없다.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정의이다.

이 땅의 각계 민중이 반부시적대감정에 기강되어 있는 것은 천만번 당연하다.

노래 ≪기특한 과자≫가 안뚝을 터친 급류의 기세로 맹렬히 파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을 악으로 지탄하는 민중의 이런 울분을 정확히 담았기 때문이다.

노래에는 테러증후군에 걸린 부시에 대한 야유와 이른바 ≪테러박멸≫의 허황성도 통쾌하게 조소하고 있다.

부시야 부시야 쌈쟁이 부시야
과자의 테러는 배후가 어디냐
과자를 만든 나라는 이제 끝장났구나

부시는 미국이 대규모 습격을 당한 이후 입만 열면 테러를 역설했다. 저들을 돕지 않는 나라는 테러에 동조하는 나라이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는 테러배후국이라고 매도했다. 그의 테러증은 올해를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의 해≫로 선포한데서 초극단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테러박멸을 운운하는 부시의 미국 자체가 진짜 테러의 원산지라는 것이다.

미국은 개인의 테러를 훨씬 초월해 국가가 조직적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세계최대의 테러국이며 복마전이다. 미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반대해 조직적 테러를 감행한 사실은 무수히 많다. 반세기만 소급해 보아도 미국은 파나마침공으로 4000여명을 살해했으며 과테말라 군사정부와 함께 마야원주민들에 대한 추악한 인종청소를 감행해 25만명을 집단학살했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이라크의 상수도시스템을 파괴함으로써 백만명의 민간인을 죽음에로 내몰았다. 유고공습시에는 평화적 주민들에게까지 폭탄을 떨구고 기관생활시설들을 파괴했다.

미국의 국가테러는 한반도에서 전율이

극도에 이른다.

지난 6.25전쟁시기에 미군이 감행한 양민학살사건은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 우리 민족은 미국의 극악한 제단위에 던져진 희생양으로 장장 반세기를 넘어 살아왔다. 특히 이북은 미국의 끈질긴 침략위협을 반세기나마 받고 있는 지구상 최대의 테러피해국이다.

군비순위 2위에서 5위권에 드는 나라들의 군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미국과 맞서고 있는 이북은 자의적 조처로 많은 몫을 국방방면에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난 시기 이북에서 단행한 고난의 행군도 결국은 미국의 대북포위압살책동이 강제한 것이다. 이남에 있는 1천여개의 미군 핵무기는 이북 전역을 120여평방킬로미터당 1개, 2만여명당 1개로 배분되어 있다. 뿐 아니라 주한미군에 의해 이 땅에서 수시로 감행되는 북침전쟁연습은 이북에 항시적인 긴장감을 덮씌우고 있다.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악의 본축이고 원흉이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한다.

부시가 이북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저들의 대북강경책을 성공시키려 꾀해도 그것은 파멸의 무지개를 잡아보려는 어리석은 자의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북은 자주로 존엄 떨치고 있다. 선군정치로 강국의 위용을 떨치고 있는 이북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으며 지구위에 그것을 피할 자리는 그 어디도 없다. 만일 부시가 이 엄연한 현실을 굳이 부정하고 기어이 북침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그 자신의 목숨도 영영 끝장날 것이다.

지난 세기 유럽의 한 작가는 모든 희극은 웃음으로 끝난다고 했다.

우리 민중은 과자도 제대로 삼키지 못해 졸도하는 부시의 몰골을 보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한다. 그 웃음은 어린애만큼도 못한 주제에 미국과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공언하는 부시의 어리광대적 행태로부터 오는 폭소이다.

시대와 민중의 지향에 역행하면서도 제가 옳다고 자고자대하는 현대판 돈키호테에 대한 풍자이고 조소이다.

경향 각계 민중은 부시를 조소하는 이 노래를 더 크게 부르며 반미반부시투쟁 파고를 더욱 높이 일으켜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1일 ~22일

3.24≪한일회담≫반대투쟁과 오늘의 과제

해마다 3월24일이 다가오면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해 거족적으로 분기해 나섰던 우리 민중의 투쟁을 어제일처럼 되새겨 보게 된다.

지금으로부터 38년전인 1964년, 일본군국주의자들은 미국의 사주밑에 친일특등매국노인 박정희역도가 집권한 것을 기화로 시급히 ≪한일회담≫을 결속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재침을 본격화하며 이 땅을 교두보로 삼아 ≪대동아공영권≫의 옛 망상을 실현해 보려고 광분했다.

당시 일본은 박정희일당을 부추겨 ≪한일회담≫을 3월중에 결속짓고 4월중에 ≪한일협정≫을 조인하며 5월중에 비준하려고 책동했다. 이에 격분한 애국적 청년학생들과 각계민중은 굴욕적인 ≪한일회담≫반대투쟁에 결연히 나섰다.

1964년 3월24일 서울대학교 문리대의 청년학생들은 ≪제국주의자 및 민족반역자 화형집행식≫을 갖고 가두시위를 벌였으며 이것을 발단으로 3.24투쟁은 삽시에 경향각지로 확산되었다.

3.24투쟁은 전국의 62개 대학과 1백73개의 고등학교 학생들, 각계층 시민 등 30여만명이 참가해 70여일간이나 줄기차게 전개되었고 마침내 6.3봉기로 승화되어 미일침략자들과 박정희일당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하지만 그날의 외침, 피의 절규는 야만적인 파쇼폭압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했고 을사조약의 재판인 치욕스러운 ≪한일협정≫이 체결되어 미국의 지배와 예속하의 이 땅에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의 길까지 열리었다. 오늘 미국의 뒷받침을 받고 있는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재침책동은 매우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

최근 일본은 ≪반테러≫의 간판밑에 지난 반세기이상 내외의 엄한 시선과 압력이 두려워 감히 손을 대지 못했던 ≪평화헌법≫에 칼질을 하여 ≪자위대≫의 기본임무를 ≪방위≫로부터 ≪해외진출≫이라는 공격적인 성격으로 완전히 전환시키고 있다. 이미 일본 ≪자위대≫의 함선들이 일장기를 날리며 인도양지역에 진출해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뿐이 아니라 일본은 우리 민중에게 저지른 과거죄행에 관해 인정도, 사죄도, 보상도 하지 않고 ≪대동아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해 보려고 이 땅에 정치, 경제적 침투는 물론 저질문화의 침습에 열을 올리고 있고 군사적 재침책동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지금 미국의 식민지인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도 전락되고 있다. 오늘의 엄혹한 정세는 우리 민중으로 하여금 38년전 3.24의 그 정신, 그 기개, 그 용맹을 다시금 떨칠 것을 긴절히 요청하고 있다.

자주, 민주, 통일에 살려는 우리 민중은 결코 일본군국주의의 재침책동을 허용할 수 없다.

각계 애국민중은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일거일동을 예의주시하고 재침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숴버려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지난기간 우리 민중에게 저지른 과거죄행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계속 강력히 요구해 투쟁해야 한다.

또한 일신일파의 기득권유지와 집권야욕을 달성하기 위해 ≪한일환원≫과 공조를 떠들며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친일분자들의 반민족적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각계 애국민중은 일치단결하여 미, 일 침략자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며 자주화되고 통일독립된 새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에 과감히 분기해야 할 것이다.

조연택 - 구국전선 3월 21일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22일

조선적십자회 일본적십자사와 회담할 용의 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일본에서 그 무슨 ≪랍치≫문제로 소란을 피우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22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최근 일본에서 아리모또 게이꼬라는 녀성이 1983년에 ≪랍치≫되였다는 그 무슨 ≪증언≫이라는것이 나와 법석 소란을 피우고 있는데 우리는 그를 ≪유혹≫하거나 ≪랍치≫한 일이 없다. 그렇지만 우리는 ≪행방불명자≫ 조사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였다.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일본적십자사와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가지고 편리한 시기에 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는 립장을 표명한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자회 폐막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자회가 자기 사업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오늘 폐막되였다. 2일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규약채택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김경호1비서가 하였다.

대표자회에 제출된 새 규약은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 조선청년운동의 개척자이신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의 청년조직이라는것을 밝히고 있으며 청년동맹의 사명을 **김일성**주석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완성해 나가는것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을 조선로동당의 정치적후비대로,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혁명의 령도자를 앞장에서 결사옹위하는 청년전위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자는 새로 채택하는 청년동맹규약을 동맹건설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해 나갈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이어 둘째 의정에 대한 토론들이 있었다.

대표자회에서는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규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전체 대표들은 김경호1비서의 선창에 따라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 충성의 맹세를 다지였다. 이번 대표자회는 경애하는 **김일성**주석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의 선군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 갈 청년전위들의 철석의 신념과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한편 이날 **김일성**광장에서는 대표자회참가자들과 평양시청년학생들의 결의대행진이 진행되였다.

미제의 새 전쟁도발 책동 규탄 집회

미제침략자들이 벌려놓은 대규모통합전쟁연습을 폭로단죄하는 현장규탄집회가 21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집회들에서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발표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성명이 각각 랑독되였다. 집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이 전쟁연습이야말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재현이며 철두철미 공화국북반부를 겨냥한 계획적인 북침도발행위이라고 말하였다. 미국은 우리와의 ≪대화≫에 대하여 떠들어 대면서 세계여론을 오도해 보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것은 저들의 침략책동을 가리우고 우리를 압살해 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이라고 폭로단죄하였다. 그들은 공화국의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으려는것이 우리의 단호한 립장이라고 하면서 미제는 조선인민의 멸적의 기세를 똑바로 보고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걷어 치워야 하며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물러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선국민회

3월 23일은 조선국민회가 결성된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85년전 이날에 조선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 김형직선생님에 의하여 평양에서 조직되였다.

조선국민회는 일제의 군사적강점시기였던 1910년대 조선에서 가장 큰 반일지하혁명조직이였다. 조직의 목적은 전체 조선민족이 일치단결하여 조선사람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참다운 문명국가를 세우는것이였다. 조직에는 로동자, 농민, 교원, 상공인, 종교인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엄선된 애국자들이 망라되여 있었다. 조선국민회는 학교계, 비석계와 같은 합법적인 외곽단체들을 통하여 조직을 급속히 확대함으로써 국내각지는 물론 베이징, 상해를 비롯한 해외에까지 정연한 조직체계를 가진 강력한 반일지하혁명조직으로 자라났다. 김형직선생님께서는 청수동회의(1918.11, 1919.7)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에서 조선국민회앞에 나서는 새로운 투쟁방침과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군중계몽사업과 무장대의 군사활동을 정력적으로 조직지도하시였다. 조선국민회의 과감한 활동은 당시 일제의 통치기반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조선국민회창건 사적비

미국은 가장 위험한 핵불량배국가

≪로동신문≫ 22일부는 미국은 인류멸살을 기도하는 가장 위험한 핵불량배국가이라고 락인하는 론설을 실었다.

론설의 필자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미국은 처음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것을 실전에 사용한 최대최악의 핵범죄자이다. 미국은 이 무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새로운 대량살륙무기들을 계속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새로운 핵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핵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미국은 생물, 화학무기도 대대적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그것을 실전에 사용하기 위하여 생화학전쟁연습을 빈번히 벌리고 있다. 랭전시기 미국의 핵전략의 기본과녁은 쏘련이였으며 랭전후 쏘련을 겨냥했던 미국의 핵무기들이 비핵국가들에로 과녁을 돌리였다.

이 모든것은 미국이야말로 인류에게 항시적으로 핵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핵위협의 장본인이라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하고 있다.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대하여 제멋대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것은 미국이야말로 최대의 핵불량배국가, 가장 위험한 핵테로국가라는것을 보여 주는것이다.

미국이 지금 남조선전역에서 벌리고 있는 ≪련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군사연습을 통합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핵타격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종합적인 전쟁연습이며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 기회를 만들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전쟁도발책동이다.

부쉬호전집단이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제압해 보려는 핵공격계획은 부질 없는 망상이다.

불은 불로 다스리며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에 무자비한 보복타격으로 맞서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기질이다. 우리의 신성한 조국땅을 건드리는 자들은 지구상 그 어디에 있어도 무사치 못할것이다.

특색있고 독특한 공연 ≪아리랑≫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종합연습과정을 직접 본 외국인들은 경탄을 금치 못해 하고 있다.

미국련합통신 텔레비죤보도회사 런던본부 프로제작국 국장 나이젤 베이커는 모든 공연의 장면들이 황홀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공연은 다른 곳에서는 볼수 없을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거대한 규모의 배경대를 사람들로 그렇듯 아름답게 펼친다는것이 믿어 지지 않을 정도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이 공연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오스트랄리아 ≪아리랑≫관광고찰단 단장 그레그 오코노는 지금까지 집단체조들을 적지 않게 보아 왔지만 이러한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처음 본다고 하면서 영국, 프랑스, 오스트랄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리랑≫을 보도록 하는데 적극 기여하려고 한다고 지적하였다.

북침을 노린 대규모 합동군사연습 시작

서울의 ≪제1라지오≫에 의하면 미제와 남조선군사당국이 북침을 노린 ≪련합전시증원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한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21일 시작하였다.

조선반도 ≪유사시≫를 가상하여 외부로부터 투입되는 미군증원부대의 신속한 이동, 전개와 합동야외기동연습으로 일관되는 이번 군사연습에는 남조선미국 ≪련합군사령부≫의 주관하에 남조선과 미국본토, 일본, 괌도 등 해외기지들에 있는 4만 3,000여명의 미제침략군과 50여만명의 남조선군이 참가하고 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미제는 우리 공화국을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하고 ≪선제타격≫론까지 서슴없이 떠벌이면서 사상최대규모의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음으로써 조선반도정세를 일촉즉발의 위험한 사태에로 몰아 가고 있다.

미국, 새 군사장비 판매를 시사

서울의 ≪련합뉴스≫에 의하면 18일 미국방성이 국회에서 북에 대비한 남조선의 군사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약 12억딸라어치의 군사장비를 판매할것을 시사하였다. 미국방성의 한 관리는 남조선이 새로 갖추게 될 3척의 구축함에 장비할 이지스방공체계와 그와 관련된 장비 등을 요청하였으며 몇해후에는 넘겨 질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백두의 선군전통을 계승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승을 떨칠 것이다 (1)

로동신문 사설 - 주체91. 3월 20일

백두산은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리고 주체의 혁명전통이 마련된 혁명의 성산이다.

백두산에서 마련된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선군전통이다.선군의 길에서 우리 혁명무력이 탄생하고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길이 열리였다.선군을 떠나서 우리 혁명의 어제와 오늘, 주체혁명의 종국적승리와 강성대국의 찬란한 미래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백두의 선군전통을 세기를 이어 끝없이 빛내여 나가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철의 신념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총대로 우리의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변함 없는 신념이며 의지입니다.≫

백두의 선군전통은 백두산3대장군의 위대한 선군사상과 리론, 선군령도업적과 경험의 집대성이며 주체혁명의 명맥을 이어 주는 **김일성**민족의 가장 고귀한 혁명적재부이다.

우리 혁명에서 선군전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주체의 원리를 구현하여 자체의 강력한 군력으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결사수호하고 혁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데 대한 탁월한 선군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주체의 선군사상의 기치밑에 군대부터 창건하시고 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자주시대 혁명의 새로운 길을 열어 놓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패의 혁명무력에 의거하여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단계의 사회혁명, 여러 단계의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백두의 선군전통은 총대를 혁명승리의 가장 위력한 무기로 내세우고 건군위업에 최대의 힘을 넣는 군중시전통이며 혁명무력에 의거하여 준엄한 난국을 타개하고 혁명위업전반을 힘 있게 밀고 나가는 백승의 전통이다.백두의 선군전통에는 군대를 수령의 군대로 키우고 강위력한 자립적국방공업을 일떠세운 업적, 필승의 군력으로 제국주의자들을 제압하고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한 경험을 비롯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선군령도의 길에서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고귀한 경험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여 있다.

총대에 의하여 계승되는 혁명위업계승완성의 합법칙성을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추대하시고 전군이 최고사령관의 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도록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온갖 심혈을 바치시였다.이것은 혁명위업계승문제를 선군의 원칙에 기초하여 빛나게 해결한 시대적귀감으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선군의 길에서 쌓아 올리신 불멸의 업적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백두의 선군 전통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찬연히 빛나고 있다.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선군사상을 받들고 조국광복위업에 불멸의 위훈을 세우시였으며 광복후 건군위업수행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였다.우리 군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인 수령결사옹위의 최고귀감도 항일의 녀장군 **김정숙**동지에 의하여 창조되였고 백두산혁명강군으로 위용 떨쳐 온 우리 혁명무력의 전투적행로에도 **김정숙**동지의 거룩한 자욱이 력력히 새겨 져 있다.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백두광명성을 안아 올리시여 주체의 선군전통을 꿋꿋이 계승해 나갈수 있게 하신것은 선군혁명의 길에서 쌓아 올리신 특출한 업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신 백두의 선군전통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발전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총대를 틀어 쥐고 혁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백두의 선군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오시였다.근 40성상을 헤아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사는 총대를 혁명의 가장 위력한 무기로 내세우고 혁명무력의 강화발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 오신 성스러운 력사이며 인민군대에 의거하여 당과 국가건설, 경제건설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일대 전성기를 열어 오신 영광스러운 년대기이다.특히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의 나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백두의 선군전통을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의 새 시대, 선군시대를 열어 놓으신 잊을수 없는 년대기로 빛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선군사상과 선군혁명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나게 계승발전시켜 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그 어떤 정세와 환경속에서도 주체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떠밀어 나갈수 있는 고귀한 재부가 마련되게 되였다.

(내일 계속)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휘밑에 대홍단에서 적들을 무리로 쓸어 눕이시는 **김정숙**동지

국토관리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28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22일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전기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국토관리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조직영도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강성대국 건설 사업을 영도하시면서 국토관리를 내나라 내조국을 부강하게 하는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으로 내세우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께서 물려주신 삼천리 금수강산을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으로 꾸리시려는 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 나라의 경제형편이 어려워지고 자연재해가 계속되자 국토관리사업에서는 이러저러한 편향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방들에서는 원료지기들을 꾸린다고 하면서 산에서 나무를 망탕 찍어내여 산을 벌거숭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무더기 비가 내리기만 하면 사태가 나고 강하천 제방뚝이 터져 나라의 귀중한 토지가 물에 잠기거나 유실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한, 강하천정리와 포전정리, 도로정리와 도로관리도 잘하지 않아 무더기 비가 오면 강물이 넘쳐나 도로와 부침등이 못쓰게 되는 현상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일부 일군들의 무관심성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서 깊이 헤아려보시고 국토관리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조직영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끄셨는가 하는데 대해서 보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국토관리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 당의 원대한 국토건설사상을 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국토건설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과학적인 정식화를 내리신 것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국토관리사업은 토지와 산림, 도로, 강하천, 연안, 영해를 비롯한 나라의 전 영토를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국토관리사업은 국가주권이 행사되는 전 영토에 대한 관리사업입니다. 국토관리사업은 토지건설과 정리, 산림조성과 관리, 강하천정리, 도로건설과 관리, 영해관리와 같은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며 사람들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관리사업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토관리사업을 잘하는 것은 나라의 물질적 부를 늘이고 조국강토를 아름답고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꾸려 후대들에게 만년대계의 창조물들과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그런 보람찬 사업입니다. 노동계급의 당이 국토관리사업을 그 본질적 요구에 맞게 힘있게 벌리자면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과학적인 정식화를 내려야합니다. 그래야 국토를 인민대중들의 이익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과학적인 정식화를 강성대국의 요구에 맞게 내리심으로써 국토관리사업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밝히신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과학적 정식화는 역사의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선 우리 혁명 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국토의 면모를 사회주의 맛이 나게 전면적으로 개조하여 **김일성**조선의 위엄을 다시금 온 세상에 과시하시려는 그이의 확고한 의지의 발현입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국토건설사상에서 중요한 것은 또한,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을 개선강화하자면 이 사업을 전당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벌려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기관, 기업소, 협동농자들에서 자기 단위의 국토관리사업을 하지 않고서는 배겨내지 못하도록 방법론을 잘 세워 강하게 내밀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특히, 봄과 가을 나무심기철을 총동원기간으로 정해놓고 그 기간에 나무도 심고 도로정리와 강하천 정리도 의무적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농사철에 전국이 총동원되여 농촌진흥 사업을 하는 것처럼 국토관리사업도 그런 식으로 조직하고 내밀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국토관리를 잘하지 않아 피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들에서 피해복구와 손해배상을 하게 해야한다고 국토관리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지 않는 현상에 대해서는 애국심이 없는 사상적 문제로 보고 되게 문제를 세워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처럼 우리 당의 원대한 국토건설사상을 제시함으로 해서 우리 인민은 사소한 편향도 없이 국토를 강성대국의 면모에 맞게 개조하기 위한 투쟁의 근본방향과 명확한 목표를 밝혀주는 근본지침을 받아 안게 되었으며 우리 공화국에서는 국토건설 역사에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변혁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국토관리에서 전환을 일으키기 위해 다음으로 이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셨습니다.

국토관리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도록 이끄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에서 중요한 것은 우선, 국토관리사업을 대담하게 작전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대담하고 통일 큰 작전을 펼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은 국토건설에서 높은 목표를 제시하신데서 집중적으로 과시되였습니다. 토지정리를 실례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토지정리를 시작하면서 일군들은 처음엔 논배미당 평수를 작게 설정했습니다. 그것은 층하가 심하고 여기저기 널려진 뙈기논밭들을 규모가 크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군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였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러한 실태를 요해하시고 논배미의 규모를 800평내지 1천평이 되게 하며 토지정리를 먼 훗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만년대계로 할데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토지정리를 본보기로 해서 가까운 기간에 공화국의 모든 논밭을 정리할데 대한 대담한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사실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이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서 안팎으로 준동하고 인민들이 식량고생 때문에 허리띠를 조여메고 있는 때에 토지정리 같은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도 못한 문제였습니다. 더구나 단 몇해 동안에 온 나라의 모든 논과 밭들을 대규모 규격포전으로 전변시킬 그런 대담한 목표를 제시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만난 속에서도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 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만이 내리실 수 있는 대용단이였습니다.

국토관리사업을 위해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의 자욱은 새 세기 강성대국 건설시대에 와서도 뚜렷이 과시될 것이며 그 자욱따라 우리 조국은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더욱 아름답게 변모될 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토지정리 뿐아니라 산림조성사업도 한 10년을 기간으로 수종이 좋은 나무들로 온 나라의 모든 산들을 전면적으로 개조할 높은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는데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자면 국토관리사업을 적어도 10년을 내다보고 내밀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나무심기만 보아도 3년내지 4년내에 회복하기 어려운 것만큼 10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수종의 나무를 얼마나 심겠는가 하는 것을 타산하여 화를 복을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전국적으로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단위도 다 국토관리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국토관리사업을 전망성 있게 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나라는 ****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 낙원으로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세우신 이러한 높은 목표는 일군들 속에서 나타난 소극적이며 근시안적인 태도를 바로 잡고 국토관리사업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오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으로 되었습니다.

국토관리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도록 이끄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정력적인 영도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일단 정한 목표는 끝장을 볼때까지 완강한 전개력으로 밀고 나가신 것입니다.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국토관리사업은 말 그대로 많은 노력과 자재, 기계수단을 요구하는 어렵고 방대한 사업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 하는 정세속에서 몸소 국토건설 총설계도를 펼쳐주시고 완강한 실천력으로 밀고 나가도록 이끌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선, 국토관리사업도 하나의 혁명으로 보고 당원들과 일군들이 보수주의와 소극적인 일본새를 극복하기 위한 일대 사상전을 벌리도록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 군대를 국토건설현장들에 파견하신 것은 우리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일본새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온 결정적 요인으로 되였습니다. 미제와 반동들의 새전쟁도발책동으로 해서 나라의 정세가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던 시기에 수많은 인민군 군인들을 국토건설에 돌리신 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의 위력의 과시였고 또, 일단 결심하신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견인불발의 의지와 강한 실천력의 발현이였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전국이 동원되여 국토관리사업을 해나가기 위한 국토건설 총동원 일단계를 몸소 지도하시고 국토건설 공사에 필요한 기계화 수단과 자재, 기름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혁명적인 조치들도 취해주셨습니다. 그러시고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몸소 여러 국토건설 현장들을 찾으시여 일군들에게 담력과 배짱을 키워주시고 일본새를 가르쳐주셨으며 공사에서 걸리는 문제를 푸는 묘술도 가르쳐주셨습니다.

청년들을 믿으시고 청년들에게 평양-남포 고속도로(오늘의 청년영웅도로입니다)건설과 같은 방대한 공사를 맡겨주시는 크나큰 신임을 주시고, 현지지도의 길에서 우리 인민들이 국토에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하여 해놓은 것이라면 비록 작은 것이라도 높이 평가해 주시며 시대의 영웅으로까지 내세워주신 분도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12면에 계속)

한미군사훈련 반대 국민대회

지난 21일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오후 1시 30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전국민중연대 주최로 대북전쟁연습 ≪한미군사훈련≫반대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대회가 진행됐다.

사회단체 소속 회원과 학생 등이 참여한 이날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사실상의 대북전쟁연습으로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정종성 서총련 임시의장은 발언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본질은 미국이 6.15공동선언을 파탄내고, 한반도를 영구식민화하려는 시도≫라고 밝히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미국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또, 정종성 임시의장은 ≪이북의 청년들은 지금 자원하여 군대로 가고 각종 결의대회를 통해 전쟁책동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현재의 전쟁위기가 매우 심각한 것임을 주장했다.

전빈련 장봉주 부의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한반도에 대규모 전쟁연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공포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하고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이룩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미국의 핵전쟁 기도 규탄 △제네바협약과 북미공동성명 이행 △전쟁연습에 동참하는 김대중 정부 규탄 △반전평화운동 전개 등을 주장하며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에서 대북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증원군의 인수, 대기, 전방이동, 주둔군과의 통합작전을 위한 군사훈련과 독수리합동 군사훈련이 병행진행되는 것으로 연인원 50만명이 참가하는 최대의 군사훈련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부시 대통령이 2002년을 전쟁의 해 로 선포하고 이북을 악의 축 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기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다.

이미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가 미대사관 앞에서 훈련중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고, 어제는 포항에서 전국연합 소속 회원들이 육탄으로 해병대 상륙작전을 저지하는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이 날로 거세지고 있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싼 한미군당국과 시민사회단체들간의 마찰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렬기자
통일뉴스 2002/03/23

(11면에서 계속)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하고도 정력적인 영도는 토지정리사업,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 도로건설과 정리사업, 강하천 및 연안, 영해관리사업, 그리고 나라의 환경보호사업을 비롯해서 조국강토를 가꾸는 그 어느 부문에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참으로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일단 결심하신 것은 끝장을 볼때까지 완강하게 밀고 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영도는 거대한 힘으로 국토관리사업을 힘있게 추동하였고, 그처럼 간고한 조건에서도 놀라운 기적과 혁신을 창조했습니다. 산림조성사업이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어져 전국을 수림화하기 위한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혁명이 힘있게 추진되여 우리 시대를 자랑하는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온 나라의 모든 도로들이 그 면모가 일신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 범위에서 그 어떤 큰 물이나 왕가물에도 끄떡 없이 농사를 짓고 인민의 생명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강바닥정리와 물길공사가 추진되였습니다. 또한 도처에 인민의 유원지들과 휴양지들이 건설되고 자연환경보호사업과 생산문화, 생활문화사업이 전군중적 운동으로 벌어져 모든 도시와 마을, 일터가 일신되였습니다.

참으로 간고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 국토관리사업을 위해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영도의 자욱은 새 세기 강성대국 건설시대에 와서도 뚜렷이 과시될 것이며 그 자욱따라 우리 조국은 **김일성**민족의 영원한 삶의 터전으로 더욱 아름답게 변모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이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미합동군사훈련, 고이즈미 방한 반대

부경총련, 기습시위 및 유인물 살포

21일(목)부터 시작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고이즈미 방한을 반대하는 부산경남지역총학생회연합(부경총련) 학생들의 시위가 연이어 진행됐다.

낮 12시경, 미군 전용부두인 ≪부산 8부두≫에서 진행된 기습시위는 동아대(3인), 부산대(2인)으로 구성돼 몸에 태극기를 매달고 시위를 이어갔다.

≪한반도 전쟁위협! 한미합동군사훈련 결사반대≫ 구호가 적힌 플랜카드를 앞세우고 미군부대 정문까지 행진해 정문에서 약 1시간가량 집회를 가졌다.

행진 시위자들이 해군 제3함대 사령부 정문에 걸어갈 때까지는 몇몇 차량들만 지날 뿐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다가 정문 앞에서 정지하고 몇 분간의 시위가 진행되자 30여 명의 전경들이 속속 배치됐다. 전경과 대치한 시위자들은 시간간격을 두고 3차례에 걸쳐 전경 앞으로 전진했지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채 대치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가 다가오자 시위학생 한 명은 오늘 시위를 설명했고 관계자는 시위 진행 시간만을 묻고는 다시 돌아갔다.

사령부 내 건물 안에 있는 많은 수의 국군장병들이 이들의 시위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시위자들은 한미군사합동훈련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시위

를 벌이겠다는 경고와 함께 1시간 가량 진행된 시위를 정리했다. 시위자들이 돌아가는 길에 경찰 관계자는 부대 안으로는 들어오지 마라는 서장의 지시를 전하며 ≪또 올 겁니까? 오늘은 끝났죠?≫라며 시위상황을 점검했고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시위자들을 자연스럽게 배웅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시위를 이끈 강택근(동아대 공대 부회장)은 ≪반미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 한미합동군사훈련 반대에 대한 국민여론화를 상승시키지 않기 위해 폭력시위가 아닌 이상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경총련 관계자는 27일(수)까지 진행되는 한미군사합동훈련이 중단되지 않는 한 시위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혀 이후 경찰과 대치국면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후 1시 30분경에는 부산 중심가 서면에 위치한 태화백화점 6-7층에서 3분도 채 되지 않은 시간, 3명의 부경총련 학생이 3천부가 넘는 유인물을 뿌리는 대시민 선전전을 벌였다.

전대기련 부울지부 공동기자단
유뉴스 2002/03/22

종교계, F-X 사업 재검토 촉구 기도회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 원불교 등 종교단체들은 25일 오후 2시 국방부 앞에서 차기전투기(F-X)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조주형 대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종교인 기도회를 갖는다.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평화통일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등이 참가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연설과 함께 각 종단의 기도가 있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2002/03/23

남한 공안당국의 실체를 묻는다

민족공조로 가야 나라가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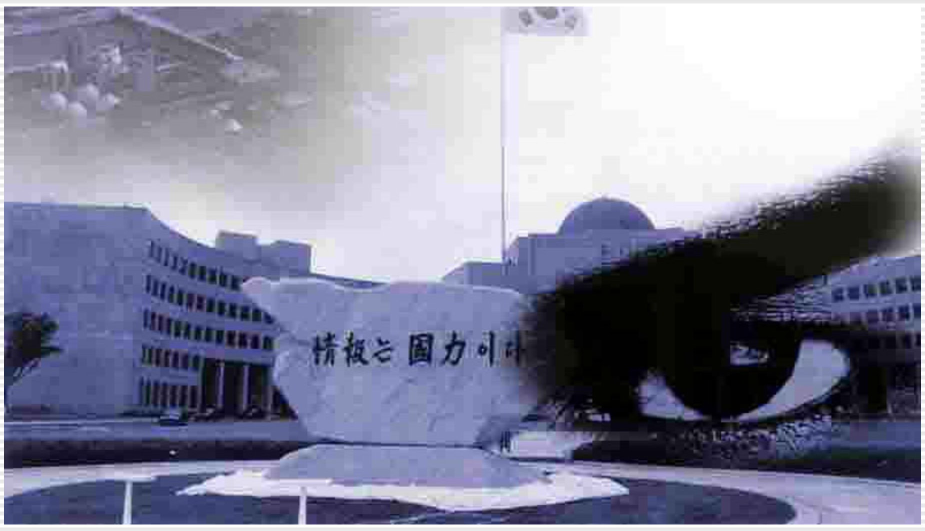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공안당국이 그 실체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공안당국이 국민들을 보호하는 기관인지 아니면 국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기관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지금과 같은 6.15시대에도 공안당국은 구시대의 악습을 반복하려는가.

최근들어 청년학생들의 연행사태가 빈번해 지고 있다. 국정원을 비롯한 보안수사대 등 공안당국은 김대중정부의 6.15남북공동선언 정신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반복적으로 자행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요즘들어 공안당국은 특히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위해 6.15선언에 담겨있는 정신을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청년학생들을 대상으로 검거선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이들이 전개하고 있는 연행사태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범청학련과 한총련 학생간부들에 대한 탄압이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어저께(22일)는 범청학련 남측본부 사무국장 김혜신(덕성여대 수학과 졸업)씨와 범청학련 남측본부 후원회 통일청춘 사무국장 김영호(국민대학교 수학교육과 93)씨가 국정원에 의해 연행되었는가 하면 다른 두명의 후원회 회원들에 대한 수배조처도 내려졌다고 한다.

23일은 또 보안수사대 형사들이 학원내부에 까지 침투하여 남총련 의장을 연행하려다가 몸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연행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이렇게 공안당국이 전개하고 있는 연행사태가 무엇을 위한 행위인지 그리고 그 배경에 어떤 세력이 작용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공안당국은 김대중대통령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을 천명한 이후에도 청년학생들을 연행하는 행위를 중지하지 않았다.



이러한 공안당국의 처사에 대해 해 내외 동포들은 무엇 때문에 6.15시대에 애국적 청년학생들이 연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다.

모두가 공인하는 사실이지만 6.15시대에 들어와서 해 내외 동포들은 ≪국가보안법≫을 사문화된 것으로 간주해 왔다. 해 내외 동포들 대부분은 이 법이야 말로 하루 속히 개폐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국가보안법≫을 법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남북의 최고지도자들이 서로 손잡고 우리 힘으로 통일을 이루자고 세계에 선언한 마당에 남북은 서로 적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공안당국은 역사의 물결과 함께 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사의 흐름을 가로 막아왔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해 내외 동포들은 ≪국정원 해체하라≫, ≪보수대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안당국의 만행을 규탄한 때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안당국은 아직도 7천만겨레의 염원을 짓밟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비판에 대해 공안당국은 어떤 해명으로 답할 것인지 묻고 싶다.

알다시피 6.15정신은 남북공조를 의미한다. 그러나 공안당국이 자행한 행위들은 남북공조와는 거리가 멀었다. 공안당국은 오히려 6.15정신을 가장 사랑하며 가장 헌신적으로 실천하는 애국청년들을 골라서 연행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그렇다면 공안당국의 실체는 무엇인가? 공안당국은 과연 대한민국의 공안당국인가 아니면 외세의 이익을 대변하고 이것에 기생하여 생존하는 수구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매국집단인가를 묻고 싶다.

이용식논설위원
민족통신2002/03/23

고이즈미 총리의 경주방문을 막아라

지난 21일 ≪한국문화체험≫을 목적으로 방한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방한 사흘째를 맞아 23일 경주를 방문했다.

이에 맞서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대경연합≫, ≪울산연합≫ 소속 회원 및 학생 60여 명은 일본 총리의 방문 장소를 찾아 정문에서부터 출입을 차단하고 과거 침략전쟁 사과 등을 요구할 예정이었다.

대경연합 이영기 집행위원장은 ≪일본과 고이즈미 총리가 최근까지도 제국주의 망령을 버리지 못하고, 오히려 한일 투자협정 등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과거 침략전쟁의 사과와 반성 없는 한국문화 배우기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이즈미 총리, 시위대 피해 ≪뒷문 출입≫

23일 오후 고이즈미 총리가 시위대를 따돌리고 두 번째 방문 장소인 불국사로 향했다.

천마총 안을 지키던 한 경찰 관계자는 ≪고이즈미 총리가 이미 방문 예정시간이던 2시40분 천마총에 도착해 10분 정도 둘러보다 다음 목적지로 출발했다≫고 전했다.

총리가 후문을 통해 방문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시위대는 천마총 정문으로 진입하려다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시위대는 정문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전경들을 몸으로 밀어내며 ≪고이즈미 방문 반대≫ 등을 외쳤다.

고이즈미 총리를 뒤쫓던 시위대의 차량이 불국사를 300여미터 남겨두고 멈추고 말았다. 고이즈미 총리의 두 번째 경주 방문지인 불국사로 향하던 시위대는 승합차량 등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불국사로 통하는 ≪시내둑길≫ 삼거리 앞에서 왕복 4차선의 도로를 전경 수송차량을 이용해 불국사로 향하는 모든 차량을 가로막았다.

시위대의 차량은 전경 수십명이 달려들어 전진을 막고 있고, 시위대는 차량에서 내려 경찰과 몸싸움과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시위대의 승합차량이 일부 파손되는 등 다소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큰 불상사는 없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불국사 앞에도 정당하게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경찰이 가로막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욱기자
오마이뉴스 2002/03/23

황사가 뒤덮던 날의 1인 시위

민주노동당, 고리대금합법화 저지를 위한 1인 시위

3월 21일 여의도의 하늘은 온통 흙색이었다.

그러나 유독 고정된 자세로 한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 평범한 1인 시위자는 아닌 듯싶다. 그는 국회의사당과 한나라당사와 민주당사가 만드는 삼각형 지형의 한 가운데에 자리를 잡았다.

그의 목에는 작은 피켓대신 형벌을 받을 때 쓰던 큰 ≪칼≫이 걸려 있다. 그리고 그는 국회의사당을 등진 채 가로등에 철조망으로 묶여 있다. 그 철조망에는 ≪신체포기≫, ≪매매춘≫, ≪가족동반자살≫, ≪가계파산≫ 이라고,

이 작은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는 주인공은 민주노동당 이자제한법 추진위원장 신장식(32) 씨. 그의 이 작은 퍼포먼스는 무기한 단식농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와 함께 나온 민주노동당 채진원 씨는 ≪민주노동당은 고리대금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노상 단식농성에 돌입합니다≫라고 쓰인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시민들에게 나눠줬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대부업법)≫을 심의해 소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대해 신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민의를 대변하고 서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폭리를 제한하는 이자제한법의 부활을 끝내 외면한 채, 거꾸로 고리대금(사채업)을 보호 · 육성 · 합법화하려는 파렴치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만행을 저지르려 한다는 점에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체포기각서, 매매춘, 가족동반자살, 협박, 폭행, 가계파산 등 떠올리기도 끔찍한 수많은 사건들이 고리사채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초기에 면밀한 검토도 없이 이자제한법을 졸속 폐지한 이후,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고리대금업은 더욱 활개를 치게 되었다. 1000%에 이르는 초고금리도 합법적인 것이 되어버렸고, 신용카드사와 상호저축은행(전 상호신용금고)등 공금융기관마저 고리대금업화의 길을 걸었다.

오전 11시부터 진행된 단식농성은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최경준기자
오마이뉴스 2002/03/22

1조8천억원 흑자기업 팔면 전기대란

발전 해외매각 반대 범국민대회

≪10년 동안 단 한번도 쉬어본 적 없고 죽도록 일만했는 데 정부는 발전소를 팔아먹고 정리해고를 한다고 한다. 이게 어찌 말이 되는가? 남편은 배낭을 싸면서 그래도 이렇게 긴 휴가를 가지 않느냐며 위로했다. 앞으로 발전노조 노동자 모두가 짤리더라도 남편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

발전노조 인천지부 가족대책위 심은숙씨의 피맺힌 절규가 23일 종묘공원에서 울려 퍼졌다.

발전 민영화 문제과 관련하여 발전노조와 정부 양측의 대립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시민사회단체와 발전노조 및 가족 약 2천여명이 종묘공원에 모여 발전 민영화(사유화) 해외매각 반대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먼저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포항제철 및 주요 은행 등 알짜 기업의 대부분이 벌써 해외 자본이 침투해 있는 상황속에서 지난 해 1조 8천억원이라는 흑자를 낸 발전을 해외매각을 한다는 것은 매국행위와 다름없다≫며 발전산업의 해외매각을 반대했다. 이어 민주노총 공공연맹 이혜선 부위원장은 ≪발전산업 해외매각 문제는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현 정권에 대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호소했다.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발전소 해외매각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한 협상에 나서라≫고 정부 당국에 촉구했으며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또한 이번 범국민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발전노조 노동자 3명과 한총련 학생들도 다수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발전노조 이호동 위원장은 ≪조합원 5천여명이 수도권 일대에 산개 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 대국민 홍보전 등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라고 말했고 ≪정부가 성실한 자세로 나온다면 언제든지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 단식을 정리하고 대국민 선전전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26일 긴급 대의원대회를 통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다≫라고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대 김진균 교수,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 등 전국의 사회학자 43명은 발전노조 파업 관련 성명서를 통해 ≪전기대란이 야기될 수 있는 발전산업 민영화 문제를 유보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성헌기자
유뉴스 2002/03/23

전공련, 공무원노조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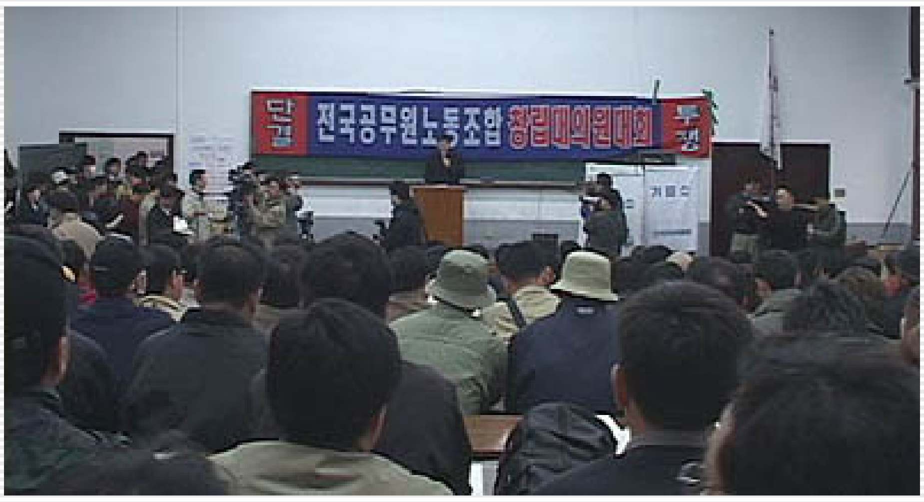
경찰,고려대 진입 대의원 전원 강제연행

전공련이 정부의 강력한 노조출범 저지에도 불구하고 밀착 감시를 하던 공권력을 따돌리고 기습적으로 행사 장소를 바꿔 마침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출범시켰다. 전공련은 23일 오후 4시 15분께 당초 24일 서울대에서 출범 예정이었던 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이 경찰의 원천봉쇄가 예상되자 전격적으로 출범식을 하루 앞당기고 장소 또한 고려대학교 강의실로 변경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강행했다. 이 날 출범식에는 전국 단위직협 소속 대의원 454명 중 286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수인 286명이 참석해 강령과 규약, 규정, 임원선출, 출범선언문낭독, 결의문에 대한 의결을 일괄 상정한 다음 출범식을 마치고 초대 공무원노동조합을 이끌 위원장 투표를 진행하던 중 경찰이 출입문을 부수고 진입해 투표 중이던 노조원 280여 명을 전원 연행해갔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소속 20여 명의 학생들은 오후 5시 17분께 경찰 수백 명이 갑자기 투표를 행사하던 학내까지 불시에 들이닥치자 긴급히 행사 중이던 강의실 출입문 두 곳을 걸어 잠그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행사를 도왔으나 공권력 앞에 역부족이었다.

한편 오늘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측은 초대 노동조합을 이끌 위원장 선출이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자 이에 대비해 이미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고광식)체제로 당분간 운영할 방침이다.

이수영기자
오마이뉴스 2002/03/23



ILO, 구속 노조간부 석방. 노동법 정비 권고

제283차 집행이사회, 구속 노조간부 석방 및 국제노동기준에 맞지 않는 노동관계법정비 등 권고안 승인

국제노동기구(ILO)는 22일 노조활동으로 구속.기소된 노조원들을 석방하고 이들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권고했다.

ILO는 이날 제283차 집행이사회 본회의를 열어 구속 노조간부 석방 및 국제노동기준에 맞지 않는 노동관계법의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승인했다.

권고사항중에는 단체협상 및 노동쟁의의 제3자 개입시 신고조항과 위반시 처벌규정을 삭제하고 형법 314조에 규정된 업무방해죄를 결사의 자유원칙에 합치되도록 정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공무원노조 설립과 관련, 결사의 자유권을 향유해야 하는 모든 범주의 공무원들에게 결사의 자유권을 확대하고 노조설립 및 가입권을 인정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법적 개입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필수공익사업의 목록을 추가로 수정, 쟁의권이 엄격한 의미의 필수공익사업에만 금지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원 자격 유지 및 비노조원의 임원출마 권리의 부정에 관한 조항도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한국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기업단위 복수노조 시행 5년 유보결정에 대해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제의 시행과 복수노조의 합법화 과정을 촉진하도록 권고했다.

오재석특파원
연합뉴스 2002/03/23

진보정당건설에 대하여 2 (3)

≪현 남조선의 조건에서 통일전선적 합법당을 내오는 데에는 기본상 세 가지 방도가 있다.

첫째로, 지하당역량으로 통일전선적 합법당을 새롭게 내오는 것이다.

이것은 지하당이 자기의 일정한 역량을 가지고 주동적으로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각층 군중을 결속하고 새로 진출하는 진보적 혁신세력들을 망라하여 통일전선적 합법당의 내오는 방도이다.

둘째로, 진보적인 경향성을 가진 기성 합법정당 안에 진지를 구축하여 내오는 방도이다.

이 방도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 하나는 본래부터 있던 진보적인 경향성을 가진 합법정당의 양심적인 인물들을 장악하고 그 잔여세력들을 규합하여 지반을 구축함으로써 기존 당을 복구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새 당을 내오는 형식으로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 당을 건설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경우는 현재 있는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경향을 가진 당 안에 직접 들어가서 그 당의 당수, 상층지도부를 쟁취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에서는 우리의 핵심이 그 당의 하부조직에 들어가 아래로부터 자기 진지를 올려 꾸림으로써 그 당을 우리 당이 영도하는 정당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셋째로, 보수정당 안에 진지를 구축하여 내오는 방법이다.

이 방도는 지금 있는 보수정당 안에 우리의 프락찌야를 박고 그의 영향하에 보수정당 안의 비교적 진보적인 세력들을 규합하였다가 좋은 정세가 도래할 때 그것을 떼내어 우리 당이 영도하는 합법당을 내오는 것이다.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은 조성된 조건에 따라 각이한 방도로 건설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 합법당을 건설하는데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적 요구들이 관철되어야 한다.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을 내오기 위해서는 그를 위한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진지구축에서 중요한 문제는 **김일성**주의 지도핵심을 포치하고 중심세력을 잘 꾸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야만 그들에 의거하여 통일전선적 합법당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조직진행할 수 있고, 이 당에 대한 우리 당의 영도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광범히 결속하여 군중적 지반을 튼튼히 꾸려야 한다.

공고한 핵심진지와 함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에게 기초하는 튼튼한 군중적 지반을 닦지 않고서는 힘있는 통일전선적 합법당을 건설할 수 없다.

특히 노동자, 농민 속에 지반을 튼튼히 닦아야 한다. 만일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이 노동자, 농민 속에 지반을 닦지 못하고 상층 정객들, 도시소부르조아계층에나 의거한다면 당을 건전한 토대 위에서 힘있는 당으로 발전시킬 수 없으며 적들의 파괴책동을 분쇄할 수 없다. 그러므로 통일전선적인 합법당 건설에서는 계급노선을 확고히 관철하여 노동자, 농민들 속에 당의 진지를 튼튼히 구축하면서 청년학생, 도시소자산계급, 민족자본가 등 각계각층 군중들과 사회정치세력들에 지반을 확대하여야 한다.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인 합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당의 강령과 구호를 옳게 제기하여야 한다.

강령과 구호를 정확히 들어야만 광범한 대중을 조직결속할 수 있다.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 합법당은 그의 통일전선적인 성격과 사명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주화, 평화통일, 자주독립, 생활개선 등 우리 당의 최저강령에 기초하여 조성된 정세와 대중의 요구에 맞게 자기의 강령과 구호를 제기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최저강령은 남조선이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공통적인 절박한 이해관계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투쟁목표이다.

그러므로 우리 당이 영도하는 통일전선적 합법정당은 우리 당의 최저강령을 조성된 정세에 맞게 구체화하여 제기함으로써 광범한 대중을 자기 주위에 집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통일전선론, ≪통혁당≫ 1980년대 중반)

≪서울에서의 방송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1월 30일 민주로동당이 창당되였다.

이 당은 창당선언문에서 로동자, 농민, 빈민 등 ≪소외된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부패정치, 패거리정치를 청산할것이라고 밝혔다. 창당대회에서는 ≪민주로총≫ 위원장과 ≪전국언론로동조합련맹≫ 위원장을 지낸바 있는 권영길이 대표로 선출되였다.

그는 ≪보안법≫철페와 정리해고반대 등을 당의 목표로 삼고 그것을 관철시킬것이라고 말하였다.

창당대회에 당원 3, 000여명과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진보정당인사들이 참가하였으며 각국의 진보적정당들에서 축전들을 보내왔다고한다.≫(민주로동당 창당, 조선중앙통신 2000 2 1 평양)

≪지난 1월30일 민주노동당창당준비위원회는 중앙당창당대회를 열어 권영길창당준비위원회 상임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하고 출범을 공식 선포했다.

민주노동당은 창당선언문에서 노동자, 농민, 빈민 등 소외된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부패정치, 패거리정치, 지역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채택된 당의 강령에는 ≪노동자와 민중이 주체가 된 민주정부의 수립≫, ≪자본주의질곡에서 벗어난다≫,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발전시킨다≫고 명기되어 있다. 또한 강령에는 ≪≪국가보안법≫폐지와 각이한 국가공안기구의 해체≫등의 인권정책,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소유권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사회화≫하며 ≪국민경제에서 시장을 활용하면서 민주적, 사회적 조절을 우위에 놓는다≫는 경제정책강령도 포함되어 있다.

권영길대표는 인사말에서 ≪경제위기에 대응하려는 김대중정권의 정책은 국민의 80%를 희생케 하며 20%의 부자들을 살찌우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80%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권대표는 주 35시간 노동제실현과 정리해고반대, ≪국가보안법≫철페를 당의 목표로 삼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회에는 3천5백명의 당원들과 지지자들, 대만, 일본의 진보정당 인사들이 참석했고 프랑스사회당과 공산당, 스페인통일좌익, 남아프리카공산당 등으로부터 온 축전이 소개되었다.

➡

광고

6.15주간

제39호 (3.15 ~ 3.21)

주석님 노작 -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결성에 대하여

조국통일의 구성 - 위대한 충정, 위대한 업적

특집1 - 북핵위협? 적반하장!
미국과 한 모든 합의들을 전면검토 / 전쟁연습놀음 당장 걷어 치워야
미국 독선 강권행위 국제법원칙 위반 범죄
미국 남조선의 합동군사연습소동 규탄
미국, 이북 등에 대한 핵공격계획 준비 / 각계, 미국의 핵전쟁계획 규탄
미국의 위험한 북침전쟁책동 / 변하지 않은 부시의 전쟁광신적 본색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두고 / ≪한미연합훈련은 전면적 전쟁연습≫

특집2 - 이회창, 어느 나라 정치인인가?
우리 공화국 중상모독한 리회창 규탄
이회창, 일본서 이북 걸고드는 반민족망언
이회창은 미국에 뼈를 묻으라 / 이회창의 시대착오적인 색깔론공세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담화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통일혁명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 38돌을 기념하며

민주노동당의 당원은 약 1만2천명인데 그 반수는 민주노총의 30대 젊은 세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공식 출범, 구국전선 2000 2 21)

≪△**문 :** 4.13총선을 앞두고 생각이 많다.

지난 15대 총선과 대선시 정권교체에 한표를 던졌던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의 정부≫가 하는 짓을 보고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번 16대총선에서는 ≪그 괘씸한 것들을 모조리 떨어뜨려 버려야 할텐데…≫ 불참할 생각도 해봤으나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이 후보를 내세웠으므로 선거에 참가해서 그들에게 표를 주기로 결심했다. 그들중 누구에게 표를 줄 것인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울산 신영숙)

△**답 :** 신씨가 현집권세력과 제도권 야당후보들에게 표를 안주고 진보정당 후보들을 지지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본다. 사실상 현집권자가 야당시절 주장했던 독재반대,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해체 등은 집권후 빈공약으로 끝났고 오히려 선행집권자들보다 더 나쁜 짓을 했다. 김대중일파의 친미친일매국행위와 반민중적, 반민족적 악정으로 인해 빚어진 오늘의 현실은 그들을 정계에서 제거해 버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김대중일파에게 국민적 심판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제도권 야당들인 자민련, 한나라당, 민국당 후보들은 다 같은 족속들이다. 절대로 그들에게도 표를 주어서는 안된다.

진보정당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한다. 진보세력을 대표하여 민주노동당이 창당되어 이번 총선에 후보를 내고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자기의 강령과 공약들에서 표방하고 있는 것처럼 민족의 자주와 통일, 새 정치를 지향하고 있다. 지금 한총련, 전국연합을 비롯한 투쟁세력들이 역량을 분산시키지 않고 모든 유권자들이 민주노동당후보에 표를 모아 주기 위해 활약하고 있는 데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신영숙씨도 민주노동당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하리라고 본다.≫(누구에게 표를 주어야 하나, 구국전선 2000 4 1)

***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통일여명 편집국**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은 바로 애국적 혁신정당이다. 여기서 주체세력이란 운동을 추진하는 주체, 조직을 건설하는 주체라는 뜻으로서 한국에서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은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고 대중지반이 있으며 통일전선운동을 합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애국적 혁신정당이라고 할 수 있다. 애국적 혁신정당이 통일전선운동에서 전위조직의 노선인 자주민주통일의 기치를 견지한다면 전위조직의 독자성은 사실상 관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유럽의 반파쑈민중전선으로 잘 알 수 있듯이 본래 통일전선운동은 당대 당의 단합으로 시작하였고 4.19직후 사회대중당을 비롯한 혁신정당이 통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이었다는 것을 상기하는 한편 현재 민주노총과 전국연합이 이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여러모로 한계가 많은 조건을 고려한다면 현단계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최적의 주체세력은 바로 애국적 혁신정당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확연해진다.

애국적 혁신정당의 의의는 우선 대중운동을 당차원의 운동으로 비약시키며 자주민주통일투쟁의 대중지반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정비되어감에 따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선거 및 의회 공간 안에서 변혁운동대오의 합법정치부대, 대변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대적 진보성과 정치성, 광범한 대중지반의 힘으로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십개 정파가 모여 한 목소리를 내고있는 민주노동당이 보여주듯이 혁신정당은 운동대오의 고질적인 정파적 분열상을 극복하는 대안의 하나이기도 하다. 애국적 혁신정당은 해방직후 이북에서 조선노동당이 독자성을 견지하면서도 민주주의민족전선이라는 대규모 통일전선조직으로 광범한 세력을 결집하여 선거에서 단일후보로 97프로를 당선시키고 친일매국후보를 낙선시켰던 소중한 경험을 오늘에 되살려 민족민주진영의 독자성을 견지하면서도 범민주진영의 통일성을 지향하며 민족민주후보, 민주후보를 당선시키고 반민족반민주후보를 낙선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선거만 되면 운동대오가 ≪독자후보론≫과 ≪단일후보론≫으로 분열하는 사태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낮은 단계의 연방제로 진입하는 상황이 되면 애국적 혁신정당은 민족민주진영의 합법정치부대로서의 변혁적 역할을 비상히 고양시킬 것이며 나아가 변혁승리의 결정적 시기를 앞당기는데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헤겔이 반동이라고 헤겔철학에서 변증법이라는 긍정적 요소를 무시해서는 안되듯이 한국청년전위들은 지난 기간 민중민주계열과 민족해방계열내의 일부 개량주의자들이 주장하였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대중운동을 당차원으로 비약시키는 혁신정당의 의의를 부정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며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자주민주통일을 지향하고 광범한 국민대중에 기반한 애국적 혁신정당을 건설하기 위하여 백방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당면하여 한국의 청년전위들은 진보적 정치이념과 자주적 민주사회건설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지난 4.13총선과 6.27지방선거를 통하여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잠재력을 보여준 민주노동당을 자주민주통일투쟁에서 응당한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애국적인 혁신정당, 참다운 진보정당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노동당이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서의 역사적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민족민주진영의 정치세력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적극 방조하여야 할 것이다.

. . .

앞으로 자주민주통일투쟁이 대중화되고 그 성과가 조직화되며 민주노동당이 애국적 혁신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민족민주전선운동의 주체세력으로서의 제 역할을 수행하는데 따라 한국변혁운동의 최대숙원이며 최대무기인 대규모 민족민주전선체의 웅장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한국청년전위의 임무,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2001 1 20)

(내일 계속)

통일여명 편집위원 한철규 발췌 (편집국 보도 64호)

조국통일3대헌장

통일운동의 진두에 서시여 (2)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그러나 온 강토를 휩쓴 이러한 환희와 흥분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백악관은 ≪7.4공동성명≫이 발표된 다음날≪남북간의 대화를 해도 한국군의 현대화는 추진시키며 주한미군의 감축계획은 없다.≫는 것을 언명하였다. 한편 박정희, 김종필 일당은 상전의 가락에 맞추어 ≪이 몇장의 성명에 우리의 운명을 점칠수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다.≫느니, ≪이제 우리는 대화없는 대결에서 대화있는 대결에로 옮겨가고 있다.≫느니 하는 망언을 늘어놓았다.

온 겨레의 숙원인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은 제국주의침략자와 그에 빌붙은 매국배족의 무리라는 것이 다시 한번 극명해졌다.

이런 정세에서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통일의 대헌장인 7.4공동성명의 발표는 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력사적인 리정표로 된다는 것을 명시하시면서 이렇게 지적하시였다.

≪이것은 외세의존에 대한 자주로선의 승리이며 민족의 반목을 지향하는 대결로선에 대한 민족대단결로선의 승리, 다시말하여 매국배족적인 영구분렬로선에 대한 애국애족적인 자주통일로선의 승리입니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온 겨레의 념원을 집대성한 것이다. 따라서 통일문제해결에서 근본초석이 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통일의 길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것이 그분의 견해이며 의지이다.

그분께서는 남북접촉이 시작되였을 때부터 모든 장애를 헤치고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성사시켜나가도록 하시였다. 그분께서는 이남당국자들의 지연전술을 간파하시고 적십자단체들의 예비회담을 신속히 본회담으로 이어지도록 하시는 한편 남북고위급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시켜나가시였다. 이렇게 하여 민족의 상설적인 공동기구로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고 쌍방대표들이 평양과 서울을 오고 가며 회의를 하게 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남의 각계민중속에서 남북의 화해와 자유왕래,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이게 하였다.

7.4공동성명발표후 급속히 높아지는 통일기운에 겁먹은 박정희역도는 1973년 6월 23일에 ≪특별선언≫으로 ≪두개한국≫을 정책화하고 민족분렬을 공개선언하는데 이르렀다.

이처럼 급변하는 정세국면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 5대방침을 관철하여 내외분렬주의자들의 반통일책동을 극복하면서 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시였다.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조국통일5대방침에 밝혀진 대민족회의의 소집을 통일문제해결의 중요한 고리로 보시고 그 실현을 위한 주동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시였다. 이해 7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의 명의로 남북, 해외의 각계각층 민중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대민족회의소집에 관한 호소문이 발표되였다. 이 제안은 이남의 각계각층 민중과 사회계, 종교단체들속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계속)